

# 장학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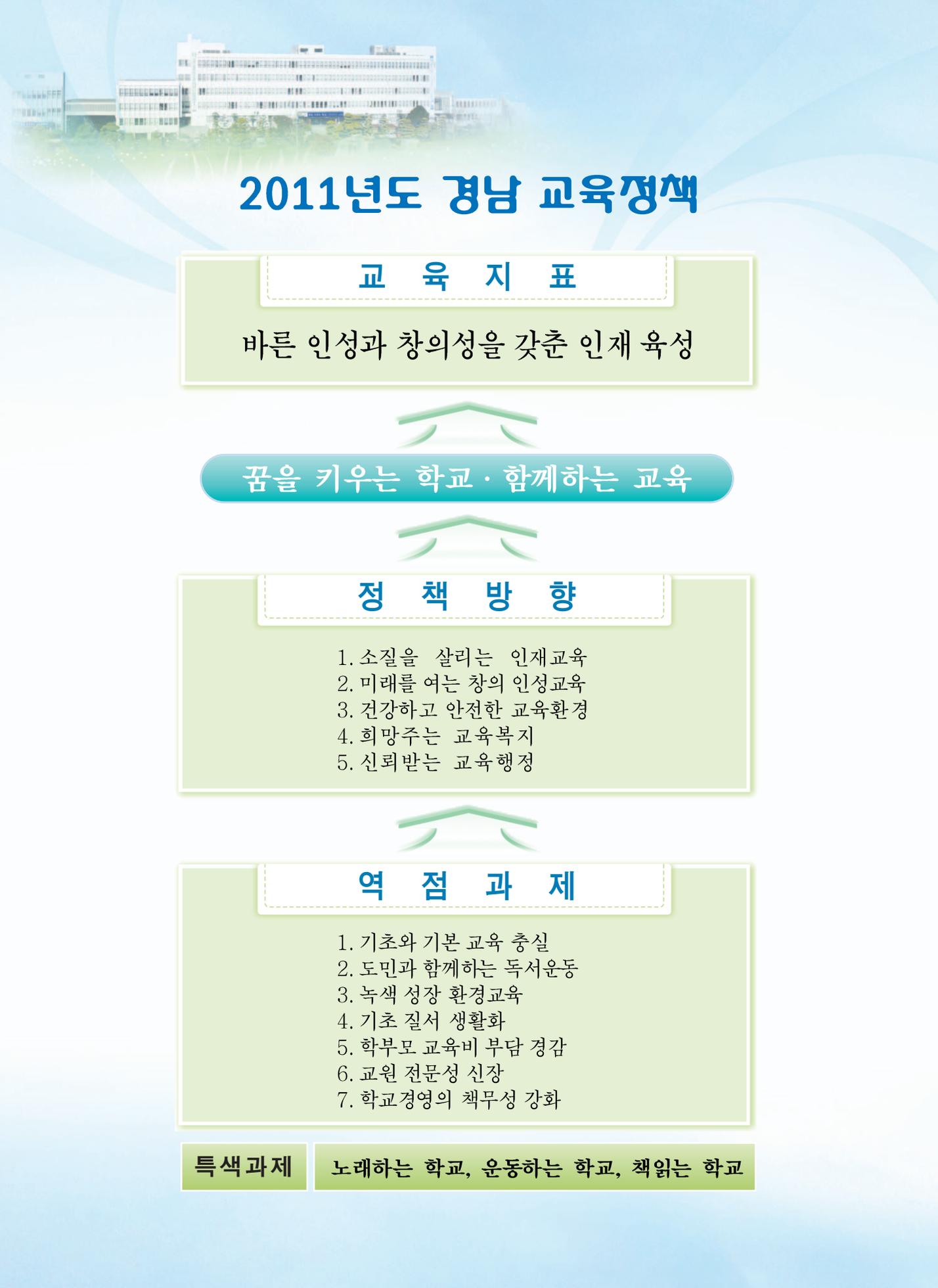
2011  
제217호(통권436호) **3**

■ 장학특집 /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 교육정보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

■ 전문가초대석 / 학습클리닉





# 2011년도 경남 교육정책

##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녹색 성장 환경교육
4. 기초 질서 생활화
5.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6. 교원 전문성 신장
7. 학교경영의 책무성 강화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임는 학교

#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1. 3 제217호(통권 436호)



02 권두언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장학 칼럼

08 특집 /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28 수업기술 나누기

35 교육정보

38 이색 교육현장

52 전문가 초대석

54 참여마당

57 향기나는 서가

59 음악이야기

61 지상갤러리

- “시작과 끝은 하나입니다” / 고영진
- 운동하는 학교 / 주동기
- 꿈을 가꾸고 빛을 나누는 RAINBOW 꿈빛교육 / 임인철
- 『명품 Best 5B』로 이룬 가람교육의 도약 / 김종원
- 창의로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북돋우며 성장을 꿈꾸는 경운 교육 / 최옥준
- 교육공동체의 2C 강화 Project를 통한 미래형 창의 인재 육성 / 이희구
- 꿈을 가꾸자! 희망을 키우자! 내서 3-UP 교육과정 운영 / 김모현
- 교육용 로봇과 함께하는 활동 / 윤옥희
- 표현활동으로 의사소통 능력 Up! 자신감 Up! / 김지선
- 즐거운 과학시간을 꿈꾸며 / 최돌선
-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 안아주며 인사하는 우리 학급 / 박현성
- ‘내가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을 마치고 / 최영수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기초 학력 신장 / 안병용
-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에 하나뿐인 졸업식 / 김도영
-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 / 이성근
- 공부를 잘하려면 자신의 성격에 맞는 공부방법을 찾아라 / 변경오
- 교 원 - 독서치료를 통해 잊고 있던 나를 만나다 / 김순숙
- 학 생 - 신 발 / 지영현
- 『180억 공무원』을 읽고 / 김외영
- 아름다운 우리노래 전통가곡(歌曲) / 이정희
- 음울 / 조동영
- ▶ 표지사진 - 박준일(구산초등학교교구서분교장)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4월호 모집 기간 : 2011년 3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안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1년 3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강대룡 • 편집주간 :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김정희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 “시작과 끝은 하나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어느새 따스한 햇살이 세상을 끌어안는 3월,  
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교육현장에서 3월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달입니다.

새 학년, 새로운 환경과 만나며 모든 것이 출발점이 되는  
‘시작의 달’입니다.

문학적 철인이라 불리는 에머슨은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겨라.  
모든 것은 사소한 일에서 출발한다.

씨앗이 하늘을 찌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라.

행복도, 불행도, 성공도, 실패도 다 그 처음은 조그만 일에서  
시작된다.”고 하여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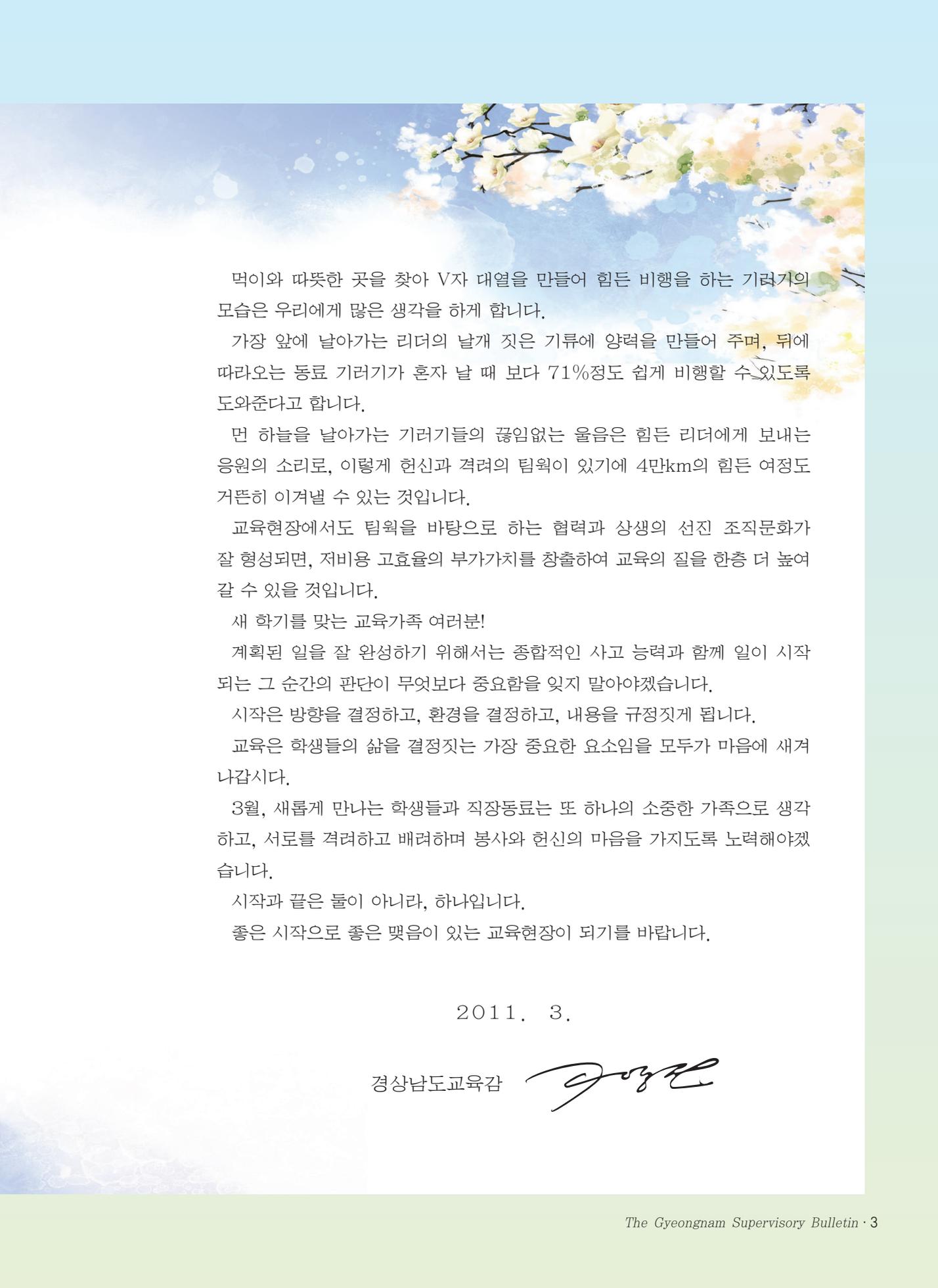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과거의 경험이나 환경을 두려워하고  
안주하려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머무르지 말고 내 안의 진정한 열정에 귀를  
기울여 나갑시다.

모든 자연이 잠을 깨고 잉태의 숨을 쉬는 3월, 새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의 출발을 위해 교육가족과 사회가 함께  
스승이 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 나가야  
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믿는 대로 된다.’  
는 신념은 자신의 꿈을 키우고 개인의 성취감을 드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을 무한히  
발휘하는 힘이 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바탕으로 선진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겠습니다.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 V자 대열을 만들어 힘든 비행을 하는 기러기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장 앞에 날아가는 리더의 날개 짓은 기류에 양력을 만들어 주며,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가 혼자 날 때 보다 71%정도 쉽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먼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들의 끊임없는 울음은 힘든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의 소리로, 이렇게 헌신과 격려의 팀웍이 있기에 4만km의 힘든 여정도 거뜰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현장에서도 팀웍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과 상생의 선진 조직문화가 잘 형성되면, 저비용 고효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 학기를 맞는 교육가족 여러분!

계획된 일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함께 일이 시작 되는 그 순간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작은 방향을 결정하고, 환경을 결정하고, 내용을 규정짓게 됩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모두가 마음에 새겨 나갑시다.

3월, 새롭게 만나는 학생들과 직장동료는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봉사와 헌신의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시작과 끝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좋은 시작으로 좋은 맺음이 있는 교육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 3.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3



04

- 01 공공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 협약식
- 02 구제역관련 학교 급식 안전관리 협의
- 03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 운동 직장 교육
- 04 미리벌초등 시범 사업 EBS멘토링 학습 참관



05



06



08



07



09

- 05 사천교육지원청 - 책 읽는 사천시를 만들기 위한 Book-릴레이 협약식
- 06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 2011. 운영계획 협의회
- 07 김해도서관 - 호호할머니 이야기 보따리 동화구연 들려주기
- 08 의령교육지원청 - 의령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캠프 활동
- 09 경상남도유아교육원 - 종일제 기타 교육활동 강사 연수

# 운동하는 학교



주 동 기  
학생건강증진과장

미국에서 인기있는 3대 스포츠라 하면 야구, 농구, 풋볼을 지칭할 수 있다. 미국은 국가 경영 차원에서 3대 스포츠, 즉 야구·농구 및 풋볼을 장려한다. 특히 풋볼에서 사용하는 전략은 무궁무진해서 사관학교에서도 많이 연구하는데, 미국이 이라크 1차 공격 때 사용한 전략은 실제로 풋볼에서 사용하는 우회 전략이었다. 이러한 풋볼은 럭비와 축구를 바탕으로 만든 미국인의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풋볼의 전략은 쿼터백의 전략만도 러닝에 50개, 패스에 200여 개나 되는데, 그 시합은 남북전쟁을 방불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포츠는 단순히 즐기고 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고체계의 정립에 큰 영향을 준다. 중국 사상가 량수밍(梁漱溟)은 중국사회를 보면서 지도자들의 스포츠 부족이 큰 문제라고 했고, 어느 미국 정치인은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이 페어플레이는 팀 스포츠를 통해 길러지는 것이라며 팀 스포츠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국 정치를 비판했다.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과거의 스포츠와 양적,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스포츠 참여자의 폭이 양적으로 크게 늘고 있으며, 스포츠 참여 동기 및 수행 양식 역시 질적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볼로포(O.F. Bollow)의 ‘개방적 물음의 원리’로 스포츠 역시 인간 현실의 일부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스포츠 현실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현대사회와 연관된 학교체육도 변화된 교육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날 학생들은 지나친 학습부담, 과도한 컴퓨터 게임과 TV시청 등으로 시간의 증대 뿐만 아니라 생활의 많은 영역들이 기계화, 자동화로 인하여 일상에서 신체의 직접적인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개인에게 부과되는 심리적인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다시 말해 신체활동량이 신체가 제 기능을 지속하기에 필요한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우리교육청에서는 특색과제로 「운동하는 학교」 정책을 펴게 되었다. 즉 재미나 규칙, 경쟁, 승리, 친교 등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오직 신체를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신체지향적 측면에서 조깅을 하거나 줄넘기 등을 하는 것이다. 하버드대 존 레이티 교수는 이러한 신체활동은 뇌 혈류량과 신경 성장 유발 물질인 BDNF를 증가시켜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운동하는 학교」슬로건으로 “1110달리기”를 선정하였다. 즉 하루(1) 한번(1) 10분 이상 달리기 운동을 통하여 튼튼한 체력을 지닌 건강한 학생, 달리기 운동 생활화로 평생 체육의 기틀 마련, 나아가 육상영재 발굴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달리는 것은 인간의 질주 본능이고,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 일반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교과 중심적 접근으로 연간 체육교과교육과정과 체육수업에 연계한 교수-학습을 진행하고,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과 일반적 접근으로 단위학교의 환경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해야 한다.

발달된 문명은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다 주었으나, 동시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그 중에서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운동부족, 스트레스, 탈감성화, 욕구불만, 각종 정신적, 신체적 질병 등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운동하는 학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의 행정적 지원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역동적 운영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건강한 삶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 꿈을 가꾸고 빛을 나누는 RAINBOW 꿈빛교육



**임인철**  
전)양산 북정초등학교 교장  
(양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요즘 대두되고 있는 창의성과 인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학교교육과정에 녹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학교 교육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 1. 학교 교육 비전 및 목표

### 1. 학교 교육 비전 및 목표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다양한 꿈을 가꾸어(창의), 빛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인성)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RAINBOW 북정 꿈빛 교육 실현'을 학교 비전으로 설정하고 학교 교육 비전 및 교육목표 구현체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2. 비전 실현 및 교육목표 공유를 위한 활동

학교 교육 비전 및 목표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위해 교사들은 전입교사와 기존교사가 함께 1박 2일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데 전교사가 함께하였으며, 학생들에게는 북정 꿈빛 구호를 통하여, 학부모와는 꿈빛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교 교육비전 및 교육목표, 교육활동을 함께 공유하였다.

## II.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 1. 학교 안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개선

#### 가.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 ●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창의성 교육을 위한 ‘학교 중점 교육활동’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선정하였고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교육내용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사회 교과에서 20% 증배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이는 교사 주도적 학습에서 학생 주도적 학습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이다.

학교중점 교육활동	세부활동내용	지도 대상	교육 활동 강화 내용	지도 교과	프로그램	증배 시수	비 고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	기본적인 학습능력 신장	1-2학년	• 기초·기본 학습 강화 • 기본적인 학습능력 신장	국어 수학	• 표현능력 신장 • 놀이수학 탐구법	+24 +14	
	탐구능력 신장	3-6학년	• 학습 문제 찾기 • 탐구 계획 세우기	사회	• 예습과제 찾는 방법 • 과제 해결 방법 찾기 • 사회과 학습장 사용법 • 탐구보고서 작성법	+20	
	정보자료 활용능력 신장	3-6학년	• 학습정보자료 수집 • 학습정보자료 공유 • 학습정보자료 처리	창체	• 정보자료 처리기능	30	
	의사소통 능력신장	3-6학년	• 소집단 토의·토론 •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육	사회 영어	• 소집단 토의 학습법 • 발표하는 방법 •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30	

##### ● 교육과정 운영 방법 개선

직접 체험활동이 필요한 교과에 대해 블록타임제를 운영하였으며, 학급별로 시기와 방법을 달리하여 운영한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과 더불어 전입생의 학습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다.

##### ● 교과 수업방법 개선

학습문제 파악, 문제해결 방법 탐색, 학습 문제해결, 결과 공유 등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교수·학습 모형을 본교 자체적으로 구안·적용하여 창의력 신장에 기여하였다.

#### 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 ● 창의적 체험활동 4개 영역 편성

학급 빛깔이 어우러진 자율활동은 학교행사, 학교특색, 학급특색의 활동을 하고, 따로 또 같이 동아리활동은 학생의 흥미에 따라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방과 후 시간에 학생 주도적으로 대학교 동아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함께 나누고 어울리는 봉사활동, 위클래스 상담교사와 함께하는 진로활동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였다.

구분	1학기					2학기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2월
학반										
1반	교과군 운영하지 않음									
2반	사회	도덕				사회	도덕			
	미술					음악				
3반	도덕	사회				도덕	사회			
	음악					미술				

● 특색있는 학급교육활동 전개

특색있는 학급교육활동을 전개하고자 담임교사의 특성 및 학생 수준을 고려한 특기 신장 주제를 정하고 월별 주제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였다.

월	영역별 지도계획													
	월별 주제	자유활동(자)						봉사활동(봉)		진로활동(진)		동아리 활동(동)		월별 시수
		학교행사(행)		학교특색(교)		학교특색(교)		활동내용	시수	활동내용	시수	활동내용	시수	
		활동내용	시수	활동내용	시수	활동내용	시수							
3	서로 알아가기	시업식	1	정보자료	새선생님, 새친구, 새 교실	4	16	학교 주변 환경 정화활동	1	진로정보 탐색활동	2	동아리안내 및 조직	2	
봉사위원선출	1	활동학습	4	모둠별 대회 만들기	2									
전교임원선출	4	지(요약)		하모니카로 추억 만들기	3									

다. 창의·인성 다지기 교육활동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심화 교육 활동 전개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다지기 활동	교육목표
국어	자유활동	• 독서 교육 관련 행사, 한글날 기념 글짓기대회	아름다운 어린이
수학	자유활동	• 수학경시대회	새로운 어린이
사회/도덕	진로·봉사활동	• 정보 활용 탐구 보고서 쓰기, 꿈 키움 프로젝트	아름다운 어린이
과학, 실과	자유활동	• 과학탐구대회, 요리경연대회	새로운 어린이
영어	자유활동	• 영어 경시대회(말하기, 노래 부르기), 영어캠프	큰 어린이
예술(음악/미술)	동아리 활동	• 음악경진대회, 북정음악제, 미술실기대회	아름다운 어린이
체육	동아리 활동	• 교내 육상경기대회, 한마음 체육대회	예쁜 어린이

● 제 3회 북정음악제 실시 : 올해로 3해째 맞은 북정음악제는 이틀 동안 저녁시간, 본교 야외특설무대에서 실시하였다. 첫째날은 극단 ‘휴’를 초청하여 국악 관현악, 국악 동요 등의 곡을 감상하였으며, 둘째날은 ‘달빛 산책 음악회’로 어화동동 풍물부, 하모니 합창부, 레인보우 챔버오케스트라, 스트로크 기타 동아리부 등 재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들의 행사 동안 400여 명의 지역 주민과 학생이 감상함으로써 학생, 연주자, 지역주민이 음악으로 한 마음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학교 밖 체험활동 활성화

가. 물적 자원 활용 체험활동

- 교내 육상경기대회 실시(양산공설운동장) : 3~6학년 학생 전체가 트랙과 필드경기에 참가하여 학교 운동장이 아닌 양산공설운동장에서 실제로 육상선수가 된 듯 실감나는 활동으로 육상꿈나무 조기 발굴 및 기초체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 초등 이팝부 종합 준우승 및 각종 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 지역사회 시설활용 전통문화체험교육 : 양산향교, 통도사템플스테이, 북정동고분군, 현충탑을 견학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다.
- 지역사회 시설이용 체험 교육 실시 : 자원회수시설 견학 및 농촌 기술 센터를 방문하여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 내용의 이해를 돕고 심화 교육활동을 할 수 있었다.

나. 인적 자원 활용 및 유관기관 협조 체험활동

- 지역사회 인사활용 동아리활동 : 레인보우 챔버오케스트라는 시청의 지원과 전문강사가 지도하고, 하모니 합창부, 히라가나 일본어부는 학부모님을 활용하여 운영하였다.
- 지역사회 인사초빙학습 : 학교폭력예방교육(양산경찰서), 심폐소생술교육(양산소방서)
- 지역사회 문화시설 이용 체험 교육 실시 : 삼량문화제 및 유채꽃 축제 참가

### 3. 학생 · 교원 · 학부모의 역량 강화

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

- 기초탄탄! 꿈꿈교실 운영 : 온종일학교를 개설하여 기초,기본,심화반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꾀하였으며 종일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맞벌이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 책을 열어 생각 키우기 : 글벗누리 독서활동 전개,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
- 방과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 : 다양하고 질높은 프로그램 운영

나.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

- 항상 연구하는 선생님 : 교육과정 워크숍 3회 실시, 교육과정 연구팀(4개 연구팀)
- 전략과 열정이 있는 수업 : 동료장학(연 3회), 외부 강사 초빙연수(교육과정 재구성)

다. 학부모 교육

- 부모님과 함께 Plus-one 교육 : 좋은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여 대구대학교 고익환 교수를 초청하여 3일간 저녁시간에 운영함으로써 아버지의 참여도를 높였다. 창의성 있는 자녀를 기르기 위한 학부모의 자세에 대한 강의와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부모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맞벌이 학부모를 배려하여 학교에서 저녁식사를 제공하였다. 또한 학부모 참여 수업을 월 1회 학년별로 운영하고 학교장과의 학부모 간담회 및 담임교사와의 상담주간을 운영하였다.
- 가슴 뭉클 감동 백배 부정교육 : 2010년 2월 제 1회 꿈가꾸기 빛나누리 축제를 저녁 시간에 개최하여 졸업 축하행사, 교육성과발표회, 졸업장 수여식을 하였으며 졸업생 전원이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이 되었고, 2011년 2월 21일 제 2회 꿈빛축제가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레인보우챔버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꿈빛대상 시상식, 제5회 졸업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4. 창의 · 인성교육평가 시스템 강화

- 교육목표 구현 성과 평가 : 교육목표-실천과제-미래 인재상을 반영한 평가
- 평가 방법 개선 : 학습장 사용, 그린마일리지, 탐구보고서, 지필평가 서술형 40%
- 꿈빛대상 : 교과 심화활동 평가결과와 교내, 교외 행사활동에 참여 결과를 총합하여 꿈빛대상을 수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성취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명품 Best 5B」로 이룬 가람교육의 도약



김 종 원  
진주 가람초등학교 교장

### 1. 이러한 배경에서

1978년 개교한 본교는 그 동안 나후된 교육시설, 아늑함과 푸르름과는 거리가 먼 삭막한 교내외 환경, 안일함을 추구하는 학교문화, 학교에서 소질과 적성개발을 위한 교육활동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는 낮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친환경그린스쿨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학교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미래 지향적인 교육활동에 전 교직원이 참여한 결과 적극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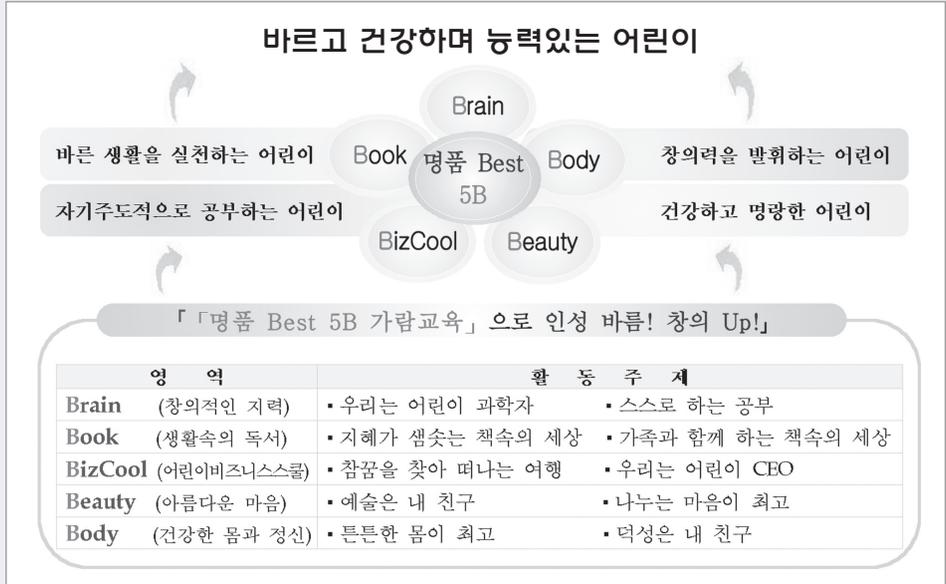
실제 2009학년도에 교육수요자를 포함한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바탕으로 2008학년도에 산발적으로 실시했던 교육활동들을 구조적으로 재 정립하고 학생 중심의 특색있는 활동들을 가미시켜 '명품 Best 5B 교육으로 행복한 가람 어린이'의 교육비전을 담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0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2009학년도 운영 내용이 학교 주도적인 면이 있고, 개정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창의와 인성교육' 내용이 미흡하다는 교사들의 의견과 좀 더 간략하면서도 깊이있는 5B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10개 주제로 구성된 「명품 Best 5B교육으로 인성 바름! 창의 Up!」을 편성하게 되었다.

### 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먼저 지·덕·체를 모두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가람초등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교육브랜드 '명품 Best 5B'를 선정하였다. '명품 Best 5B'란 최선(Best)을 다한 5B(Brain Book, BizCool, Beauty, Body)활동을 통해 명품 교육을 구현하고, 이로써

학생 개인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의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며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 가. '명품 Best 5B' 학습장 제작

학생들의 보다 알찬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명품 Best 5B' 학습장을 제작하여 전교생에게 배부하였다. 저학년용·고학년용으로 제작된 이 학습장은 각각 18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용 우수 학생 시상을 통하여 성취 의욕을 고취시켰다. 또한 10개 주제의 모든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게는 학년말에 '명품 가람어린이 인증서'를 교부하였다.

### 나. '명품 Best 5B'의 각 영역별 활동 내용

#### ■ Brain (창의적인 지력)

• 우리는 어린이 과학자 : 과학(슬기로운생활)과에서 8시간 증배하여 관련 시수를 확보, 전교생이 1인 1 자유탐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3학년은 과학과 '동물의 한살이'와 연계, '누비통' 동아리에서 사육한 '누에의 한살이'를 주제 탐구하기도 하였다.



• 스스로 하는 공부 : 기초와 기본학습 정착을 위해 전학년 수학과에서 10시간 증배하였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기르기 위한 '공부습관 바로 잡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생이 스스로 일일 생활계획과 학습성취 도달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매주 담임교사의 점검 지도와 칭찬을 통한 피드백을 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학부모에게 당부하는 내용과 확인란을 통해 가정과 함께 하는 교육이 되었다.

■ Book (생활 속의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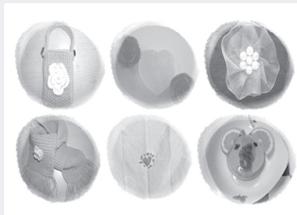
- 지혜가 샘솟는 책 속의 세상 : 등교 후 아침활동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20분 책읽기를 하고, '명품 Best 5B' 학습장을 활용하여 독후 감상활동을 하였다.

- 가족과 함께 하는 책 속의 세상 : 매월 4주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독서활동을 하고 독서 토론한 내용을 학습장에 기록하게 하여 가정과 함께 하는 독서교육이 되었다.

■ BizCool (어린이 비즈니스스쿨)

-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 개인의 특성과 소질을 살린 진로교육을 위해 주제중심(진로개발 역량 함양)으로 재량·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하였다. 또한 일반교과와 연계된 진로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과통합 진로교육 학습지도 모델을 38차시 분 개발하였다. 이 때 활용되는 활동지는 '명품 Best 5B' 학습장에 수록하였다.

- 우리는 어린이 CEO : 주제중심 재량·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의 특기와 재능을 살린 창업동아리를 조직하여 모의 비즈니스 활동을 하였다. 진주 YWCA 싱크머니 협력학교, CEO 초청 특강, JA Korea 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한 기초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한 후 창업아이템을 찾고, 비슷한 아이템끼리 모여서 19개의 창업동아리가 조직되었으며, 그 중 12개 동아리는 2009학년도에 이어 2년째 활동 중이다. 학교 홈페이지에 각 동아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on-off line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동아리별로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하였다. 11월에는 창업동아리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복 가득 가람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었으며, 이 때 필요한 동아리별 홍보·마케팅 전략도 학생들이 직접 구상하는 등 입체적인 경제체험활동이 되었다.



〈동아리 생산품〉



〈행복가득 가람 페스티벌〉

■ Beauty (아름다운 마음)

- 예술은 내 친구 :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한 감상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였으며, 1인 1악기 연주 계획을 세워 1년 동안 꾸준히 연습함으로써 심성교육이 되었다.

- 나누는 마음이 최고 :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 월 1회 이상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다.

■ Body (건강한 몸과 정신)

- 튼튼한 몸이 최고 : 학교와 가정에서 각자의 능력에 맞는 줄넘기 운동으로 기초 체력이 향상되었다.

- 덕성은 내 친구 :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효제 실천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게 하였으며, 도덕과 시간과 연계하여 지도하였다.

### 3. 가람교육의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명품 Best 5B교육으로 인성 바름! 창의 Up!」운영으로 본교 교육력이 대내외적으로 도약되는 지난 한 해가 되었다.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교과부, KBS) 출품, 아름다운 학교 전국 대상(교과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교과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개발원, 조선일보), 체육활동 우수학교(경상남도교육청)에 선정되었고, '명품 Best 5B'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의 85%가 만족하였으며, 학생들의 창의성, 독서능력, 진로인식, 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기초 체력 효제 정신 등 모든 영역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이제 한 걸음 더 도약된 가람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보다 알찬 내용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학생 교육에 전 교직원이 매진할 것이며, 그리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가람초등학교를 만들어 갈 것이다.



## 창의로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복돋우며 성장을 꿈꾸는 경운 교육



최 옥 준  
김해 경운중학교 교장

### I. 2009 개정교육과정의 화두 '창의'와 '인성'

“교육이라는 이름의 보트에 탄 아이들 중 단 한사람이라도 물에 빠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스스로 공부하세요! 그래도 잘 안 될 때는 도와줄게요!”

위의 말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전 영역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선진국의 입지를 다진 핀란드에서의 학생 교육 방법이다. 미래 사회는 학생들의 학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 더불어 함께하는 올바른 인성을 가진 인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학교는 최고의 목표를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두고, 창의와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학생 중심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II.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경운의 4가지 프로젝트

#### 1. 반짝이는 수업, 창의적인 수업을 위한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 중심의 일제식 수업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 내용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본교는 교사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경력교사와 저경력교사의 의사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교과 협의회를 내실화 해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교육과정 재구성		추진 성과	교육활동 사진
교육과정 재구성		<p>〈재구성의 기본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 활동을 지역사회의 특성과 연계하여 재구성, 학습자의 흥미와 수업 참여도를 높임</li> <li>짝학습, 모둠토의학습, 팀 프로젝트학습 등 다양한 수업 방법 도입하여 창의적인 사고 도출</li> </ul>	
교과별 교육 과정 재구성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칭찬통장을 활용한 학습자 동기 부여</li> <li>시 내용 그림으로 표현하기, 릴레이 소설쓰기, 인물의 삶이 드러나게 삼행시 짓기 등 창의적인 수업 전략 활용</li> <li>내고장 시인 찾기, 경상도 음운변동현상 탐구 등 지역성 고려한 수업 진행</li> </ul>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어 속담 만들기, 세계 도시 소개하기, 안전 수칙 영어 포스터 그리기 등 창의적인 수업 진행</li> <li>김해시 영어로 소개하기, 분성 천문대 소개하는 메일 보내기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수업 진행</li> </ul>	
	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랙탈 카드 만들기, 피비우스의 띠 만들기 등 체험을 통해 수학 원리를 이해하는 창의적인 수업</li> <li>'수학 대장' 사이트를 활용한 학습자 동기 유발</li> </u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둠별로 시대별 도표를 완성하는 모둠 학습 전개</li> <li>학생 멘토-멘티를 활용한 뒤처지는 학생 없는 수업</li> </ul>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포분열과정 모형 만들기, 태아입장에서 일기쓰기, 초코파이 부풀리기, 나만의 과자 만들기, 분자모형 만들기 등 창의적인 수업 진행</li> <li>행성 자기 소개서 만들기, 나의 별자리 소개하기 등 모둠학습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 진행</li> </ul>	

## 2.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인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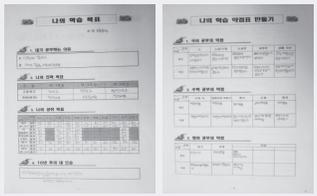
본교는 지역사회 자원지도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쉽게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밖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의 봉사단체 및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의 이웃의 삶을 돌아보며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돕고,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한 특수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자원 지도	추진 성과	교육활동 사진
지역 봉사 단체 : 김해 생명의 전화 노인 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교 학생회 및 징검다리 봉사단과 '김해 생명의 전화 노인 복지센터'가 연계된 연간 봉사활동</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학생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의 동전 모이기, 흠뻑 어른신께 연탄 및 선물 드리기</li> <li>• 명절에 쌀, 과일을 모아 어르신 방문 인사드리기</li> <li>• 독거노인 학교에 모시고 식사대접 하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징검다리 봉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흠뻑 어른신 가정 청소하기, 어른신에게 편지쓰기</li> </ul>	
지역 이동 센터 : 내외동 이동복지센터, 김해 사랑지역 이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검다리봉사단 회원들이 직접 만든 제기를 가지고 아동센터에 가서 형과 누나의 역할을 하면서 전통민속놀이 체험을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를 확산시킴</li> </ul>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 사회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이용하기, 영화 관람, 동사무소 견학, 은행 이용, 소방서 견학, 대형마트에서 물건 구입, 박물관 이용, 김해 문화의 전당 이용, 장애인 복지관 이용 등 지역 사회 시설을 활용한 특수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사회 적응력 높임</li> </ul>	
학교 폭력 추방 거리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김해지역 5개 중학교 및 지역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학교 주변의 폭력 추방 및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와 거리캠페인을 진행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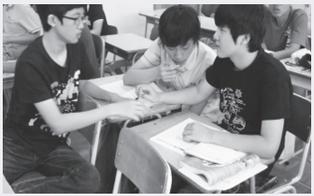
### 3. 사제동행의 하모니 : 학생 멘토링제, 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젝트

상대평가방식으로 인한 과열된 입시 경쟁 속에 인성교육의 첫걸음은 경쟁이 아닌 함께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본교는 학생 멘토링제를 도입해 모르는 내용을 서로 가르쳐주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학습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생활과 학업 면에서 집중적인 상담을 실시해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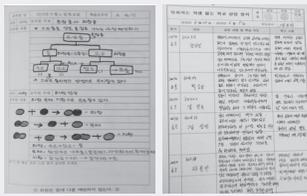
#### 〈 학생 멘토링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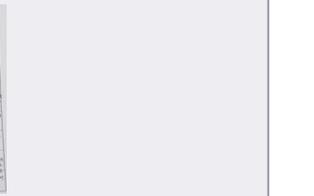
나의 학습목표, 약점 목록



멘토-멘티 학습 활동 모습



멘토 학습일기



교사 상담 일지

〈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젝트〉



교사 계획서

학생 이해 자료

자아발견검사

MBTI검사

교사 활동 일지

4. 창의적인 평가 시스템

본교는 평가가 교수·학습이 끝난 후 성취수준을 점검하는 단순한 기능을 벗어나 평가도 교육의 한 과정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수행평가를 내실화 해 평가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교과에서 행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평가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가를 함으로써 전인적인 면에서의 성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과목	평가 목표	교육활동 사진
국어 독서기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을 읽고 난 뒤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종합적인 독서 능력을 계발하고 독서기록장을 자신의 독서 포트폴리오로 활용하여 책임기에 대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함</li> </ul>	
도덕 ucc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 스스로 UCC를 제작해 봄으로써 추상적으로 여겨지던 도덕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이해하며, 도덕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함.</li> </ul>	
기술·가정 환경신문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하천인 해반천 생태계 탐구를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고 개선책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함</li> </ul>	

Ⅲ. 비전이 있는 교육을 위해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창의·인성 교육은 각각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의 핵심을 짚는 말이지만 매우 포괄적인 의미라 각 학교별로 창의·인성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교사들의 노력과 꿈이 학생들의 가능성을 싹틔우는 봄햇살이 되어 2011학년도 한 뼘 더 성장한 경운교육의 비전을 그려본다.

# 교육공동체의 2C 강화 Project를 통한 미래형 창의 인재 육성

“교육공동체의 communication(소통) + convergence(융합) Project”



이희구  
진주중학교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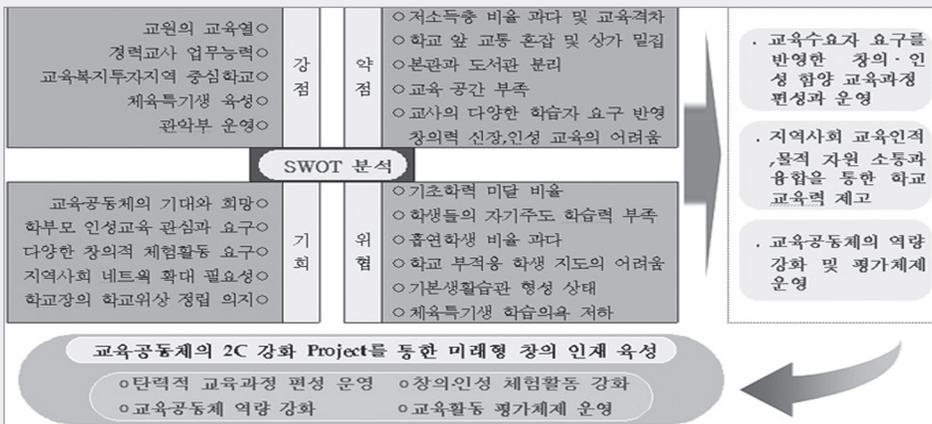
## I. 추진 배경

전통교육에서와는 달리 ‘미래형 창의 인재의 육성’은 학교 교육력과 더불어 교육공동체인 학교(school)-학부모(parents)-지역사회 학제간 또는 분야별 전문가(expert in community)의 지식과 전문성이 상호 소통(communication)되고 융합(convergence)될 때, 그 교육적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본교는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공동체의 2C 강화 project를 통한 미래형 창의 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개방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기르기 위한 미래형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전력하고 있다.

## II. 교육과정 운영 준비

이를 위해 교육과정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 여건과 SWOT 분석을 통해 교육목표 비전 제시와 추진전략을 선정하였다.



본교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성실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반듯하고 당당한 학생, 질서 있고 깨끗한 학교, 깨어 있는 학교, 책 읽는 학교’의 4가지 교육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교육공동체의 소통(communication)과 융합(convergence)에 기반한 교내·외 교육활동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 Ⅲ.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 교육공동체의 2C 강화를 통한 미래형 창의 인재 육성

학교 내 교육활동	교내·외 창의·인성 체험활동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활동	학교 교육활동 평가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창의·인성 체험활동 강화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활동 평가 강화
교사+학(생)부모+지역사회	교사+학(생)부모+지역사회	교사+학(생)부모+지역사회	교사+학(생)부모+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교육 시간 편성</li> <li>• 미술·한문 학기 집중 이수제</li> <li>• 블록타임제(미술)</li> <li>• 수준별 이동 수업</li> <li>• NIE 수업</li> </ul> </li> <li>○ 재량활동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량활동 시간 편성</li> <li>• 창의·인성함양 창·재 프로그램 운영</li> </ul> </li> <li>○ 특별활동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활동 시간 편성</li> <li>• 창의·인성함양</li> <li>• 특별 활동 프로그램 운영</li> </ul> </li> <li>○ 효제·전통문화계승 학교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영재학급 운영 (11월 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전한 청소년문화 선도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연계 체험활동</li> <li>• 학교단위 체험활동</li> </ul> </li> <li>○ 저소득층 교육복지투자사업 연계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차원 능력개발 프로그램</li> <li>•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li> <li>•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li> <li>• 건강증진 프로그램</li> </ul> </li> <li>○ 질서 있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별 바른생활지도교사 재-급식지도교사제</li> <li>• 배움터지킴이 운영</li> </ul> </li> <li>○ ‘사랑의 걷기’ 운동</li> <li>○ 청소년 단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역별 동아리 활동</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학력미달제로화</li> <li>• 생활한자 400자 익히기</li> <li>• 영어인증제 실시</li> <li>• 독서교육 활성화</li> <li>• 관악부 육성</li> <li>• 체육영재 육성</li> <li>• 과학영재 MBL 실험</li> </ul> </li> <li>○ 교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장학</li> <li>• 교원전문성 연수</li> <li>• 수업공개</li> <li>• 교원능력개발평가</li> </ul> </li> <li>○ 학부모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설명회</li> <li>• 관악부 학부모 설명회</li> <li>• 진학지도 설명회</li> <li>• 학부모 동참 교육활동</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영역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형 지필평가</li> <li>• 교과별 창의·인성요소 반영 수행평가</li> <li>• 예체능 교과 절대평가</li> <li>• 국어 서술형 평가실시</li> <li>• 도덕-수행평가 30%, 1학년 보고서 15%</li> <li>• 과학, 수학-수행 30%</li> <li>• 영어-듣기 10%, 서술형 30%</li> </ul> </li> <li>○ 특별활동 평가</li> <li>○ 창의적 재량활동 평가</li> <li>○ 방과 후 교육활동 평가</li> <li>○ 창의·인성교육 만족도 조사</li> <li>○ 학교교육 만족도 조사</li> </ul>
			

#### IV. 교육과정 추진 성과

1.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전년대비 비율이 3과목(국,사,영)에서 약40%-50% 감소 하였고, 나머지 2개 과목도 그 비율이 감소하여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 및 ‘기초학력미달 제로화’ 특색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나타났다.
2.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연계 확대 및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교육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창의·인성 교육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 다음 학년도에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교육평가에서 창의·인성 교육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방안을 모색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요소를 자극하여 미래형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창의·인성 함양 교육교재로서 발간한 효제 실천기록장 ‘아름다운 마음가꾸기’ 및 ‘창의적 재량활동 교육교재’와 ‘나의 꿈 이야기’ 노트를 교육자료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5. 본교의 ‘교육공동체의 2C 강화 project를 통한 미래형 창의 인재 육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는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다.(2009년 12월, 2010년 10월)
  - 가. 교과교육활동에 대한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결과  
 ‘교과교육 편제, 수업시간 운영, 수준별 수업, 기초학습 부진 지도에 관한 만족도 설문’에 대하여 ‘그렇다(만족) 이상’ 응답률이 전년 대비 학생 19.3%, 학부모 27.8%, 교사 19.9% 상승하였다.
  - 나. 재량활동에 대한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결과  
 ‘재량활동 편제 시 학생·학부모 요구 반영, 수업 운영, 학생 이해도에 관한 만족도 설문’에 대하여 ‘그렇다(만족) 이상’ 응답률이 전년 대비 학생 12.8%, 학부모 21.8%, 교사 10.2% 상승하였다.
  - 다. 특별활동에 대한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결과  
 ‘특별활동의 편제, 수요자 요구 반영, 자발적 참여에 관한 만족도 설문’에 대하여 ‘그렇다(만족) 이상’ 응답률이 전년 대비 학생 14.6%, 학부모 21.6%, 교사 10.4% 상승하였다.
  - 라.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결과  
 ‘방과 후 교육활동의 수요자 요구 반영, 학생의 자기발전 기여 및 참여에 관한 만족도 설문’에 대하여 ‘그렇다(만족) 이상’ 응답률이 전년 대비 학생 14.1%, 학부모 11.9%, 교사 2.7% 상승하였다.

마. 2010 창의·인성 교육 및 학교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 1) ‘교과, 다양한 교·내외 창의·인성 체험활동,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활동, 교육평가를 통한 창의·인성 교육 만족도 설문’에 대하여 ‘그렇다(만족) 이상’ 응답률이 학생 56.4%, 학부모 58.59%, 교사 97.3%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교육 만족도 설문’에 대하여 ‘그렇다(만족) 이상’ 응답률이 학생 86.4%, 학부모 56.3%, 교사 95.9%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향후 과제

영역	2011	2012	2013
교육과정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
	영,수, '2+1' 수준별 수업	영,수,과 '2+1' 수준별 수업	영,수,과 '2+1' 수준별 수업
	책 읽는 아침, 한자쓰기 지속	책 읽는 아침, 한자쓰기 지속	책 읽는 아침, 한자쓰기 지속
체험활동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속	창의·인성 체험활동 다양화	창의·인성 체험 모델 확산
	교육복지투자시범사업 지속	교육복지투자사업 지속	교육복지투자사업 지속
역량강화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속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속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속
	관악부, 체육특기생 육성 지속	관악부,체육특기생 육성 지속	관악부, 체육특기생 육성 지속
	자율장학 강화(전문성 신장)	자율장학 강화	자율장학 강화
	동참하는 학부모상 정립	동참하는 학부모상 정립	동참하는 학부모상 정립
	학교교육활동 홍보 강화	학교교육활동 홍보 강화	학교교육활동 홍보 강화
교육환경개선	높낮이 조절 책걸상 및 학생 사물함 교체, 방송실 정비	학교도서관 분관 이동 발주	학교도서관 분관 이동
	분관 진입로 포장공사	쓰레기장 정비	체육특기생 숙소 정비

# 꿈을 가꾸자! 희망을 키우자! 내서 3-UP 교육과정 운영



김 모 현  
창원 내서중학교 교장

본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위치한 학교로서 인근의 학교들보다 교육여건이 다소 열악하지만 모든 학생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 선생님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학교장의 강한 교육 의지를 받들어 학교교육의 비전인 큰 꿈을 키워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학생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성교육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선정되었으며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인 창의·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한 ‘내서 3-UP(학력·희망·생각)교육과정’의 주요 우수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1.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학력 UP

### 가. 학교자율화 운영

#### 1) 집중이수제 운영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컴퓨터, 도덕	사회	사회, 한문
2학기	미술	국사, 한문	도덕, 국사, 음악

2) 토요일 1,2교시를 블록타임제로 운영하였으며, 학생중심의 학습활동을 위주로 수업을 전개하였다.

#### 3) 20% 순증 운영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시간)	과학(20), 영어(14)	과학(27), 국어(7)	과학(27), 국어(7)

1학년 사회와 2·3학년 국어교과 수업시수를 늘이고, 1학년 도덕과 2학년 영어와 3학년 체육교과 수업시수를 줄이는 수업시수 20% 증감 운영과 위 표와 같이 20% 순증에 따른 과학실험전문, 영어회화, 한문강사를 채용하여 수업의 질 제고에 노력하였다. 또한 진로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창의성계발을 위해 창의적 재량 활동 교육과정으로 진로교육과 영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학 및 사회교과에 대한 초빙교사제와 체육교과에 대한 전보특례 실시로 교육활동 우수교사 확보에도 노력하였다.

## 나.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2010학년도 2학기 사교육 없는 학교 개설 강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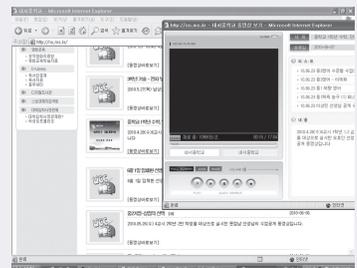
강좌명	강좌수	시 간	장 소	지도교사	참여학생수
교과패키지 (국,영,수,사,과)	20	월, 금 7교시 15:40~16:25	각 교실	본교교사 20명	전교생
EBS교육방송	20	월 ~ 토 08:05~08:45	각 교실	담임교사	전교생
학력향상반 (야간)	4	월 ~ 금 9교시 18:40 ~ 19:25 10교시 19:35 ~ 20:20	1학년 1-3,4반 2학년 2-1,2반	본교교사	1학년(36명) 수준별 2개반 2학년(46명) 수준별 2개반
도서실 공부방	1	토요일휴무일 09:00 ~ 12:30	도서실	사서교사	희망자

## 다. 자기주도적학습의 EBS교육

2010년 3월부터 연중 계속 아침자율학습시간(08:05-08:45)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방송실에서 학년별 담당학생이 계획표에 따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 교과내용을 방송하고 담임교사가 입장지도하며 EBS교육방송 시청 후 학습장을 확인하는 등 EBS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켰다.

## 라. 전교사 수업동영상 분석을 통한 자기장학

전교사(36)가 본인의 수업동영상을 편집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수업동영상을 분석하고 자기장학의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공개수업 시 촬영된 동영상을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분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학교자율장학 활동 우수학교로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된 동영상 자료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 조사 자료로 활용되었다.



<수업동영상 학교홈페이지 탑재>

## 2. 체험을 통한 희망UP

### 가. 과학 3E(Experiment · Explore · Experience) Program 운영

1) E1 : 실험 능력 향상을 위한 MENTO-MENTI 실험 프로그램

과학 수준을 통한 실험시간 확보와 실험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학생들의 실험 탐구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실험실습용 교재생물을 경남과학교육원에서 무료로 신청하여 실험활동을 하였으며, 탐구·관찰 및 보고서 작성을 통해 과학논술 능력을 신장시켰다.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수증시간	연 20시간	연 27시간	연 27시간

2) E2 :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심화 탐구 프로그램

과학 심화탐구 프로젝트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수주하여 1학기 150시간을 운영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 및 장유고등학교에서 실험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여 실험 활동을 하였으며, 23명의 학생에게 KAIST 사이버영재교육원을 통한 영재 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과학심화 탐구학습 교육의 질을 높였다.

3) E3 : 이공계 과학자 양성을 위한 WISE CAMP 체험 프로그램

과학기술 네트워크인 인재대학과 협력하여 WISE CAMP 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 여학생들의 수학·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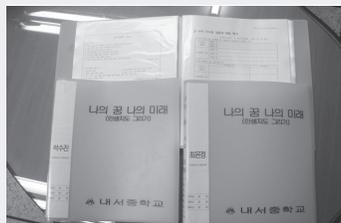
- 교내 : 연 2회 수학/과학 WISE 캠프 운영
- 교외 : 인재대학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중 WISE 캠프 참여
- 과학 Ambassador(창원대 정은태 교수)초청 강연



〈교내 WISE CAMP〉

### 나. 입학사정관제 대비 자기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본교가 구안한 프로그램 ‘나의 꿈 나의 미래’를 클리어 파일에 넣어서 각 개인에게 사전 배부하여 입학 할 때 지참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나의 꿈 나의 미래’ 포트폴리오는 중학교 3개년 동안 진로 계획 및 학생자료에 관한 내용을 꾸준히 수집하여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는 ‘생애단계별 진로 인증제’로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의 꿈 나의 미래’ 파일〉

### 다. '내 생애 아름다운 만남' 체험·봉사 활동

동아리명	회원수	활동시간	주요활동내용	
한국해양소년단	27명	141	해양제전 참가 및 노인 요양원 봉사활동	 <효도마을 노인요양원>
한국청소년 경남연맹	23명	102	광려천 환경정화	
청소년적십자(RCY)	30명	109	노인요양원 봉사활동	
파라미타청소년협회	23명	116	문화재 보존 및 알리미	

## 3. 독서를 통한 생각UP

### 가. 사제동행 독서토론동아리 <포도씨앗>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독서토론동아리로 선정되어 학교의 '독서논술 및 토론' 붐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활동 내용	시간	장소	지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후토론 활동을 통한 발표력 향상</li> <li>○ 독서논술 활동을 통한 사고력 신장</li> <li>○ 좋은 책을 선택하는 안목 형성</li> </ul>	방과후 (수요일)	도서실	외부강사 담당교사 사서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 감상문 및 감상화 그리기</li> <li>○ 나만의 독서신문 만들기</li> <li>○ 독후토론 및 글쓰기, 문학기행</li> </ul>	2010.07.19 ~08.23	도서실	외부강사 담당교사 사서교사

### 나. 독서인증제 운영

학년별 필독도서(10권)와 권장도서(20권) 중 15권 이상 읽은 학생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상황'란에 독서활동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자료정리를 위해 학급별 독서인증제 파일을 제작하여 관리하고 독서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국어 수행평가에 반영하였다.



<독서인증제 파일>

## 교육용 로봇과 함께하는 활동



윤 옥 희

거제 한아름유치원 교사

### 1. 교육용 로봇의 역할

교육용 로봇의 역할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학습효과를 향상, 학부모 유아 교육 참여, 유치원교사의 유아교육 활동 부담을 경감하며 유아들에게 과학적인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용 로봇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유용한 교수매체로 교육용 로봇을 유치원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유치원교육과정 활동의 보조자료, 유아의 학습도우미, 교사의 수업도우미 역할을 한다.

### 2. 교육용 로봇의 기능 활용

출석부, 정리정돈, 학습자료 제공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해 주는 기능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녀의 활동 자료를 실시간 확인해주는 학부모의 안심도우미 기능으로 구분하여 활용한다.

### 3. 교육과정운영에서 교사 보조 기능 활용

가. 출석-유아의 출석 사항(출석, 지각, 결석)과 매일의 감정을 기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출석'으로 정의하여 일반적인 출석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출석체크 기능과 등원 시 유아의 구체적인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체크기능을 활용하여 유아의 그날의 기분과 건강 상태를 알아보고 활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나. 정리정돈-자유선택 활동 후의 정리정돈 기능은 노래와 멘트를 통한 정리정돈 안내 및 지도기능과 정리정돈 순위를 뽑아 가장 먼저 정리를 끝낸 '정리대장'을 선정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유아들이 교육용 로봇과 함께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과 멘트에 맞추어 정리 정돈하는 습관을 가졌다.

다. 학습-유아와 교사가 이미지 콘텐츠를 찍고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학습’ 기능으로 정의하였으며, 학습기능을 통해 교사는 로봇에 내장된 카메라 또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한 이미지를 수업 전에 저장하여 수업 시 학습 자료로 사용하였고 유아는 같은 기능을 사용해 교육활동 후 자신의 작품을 촬영·저장하여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였고 유아, 교사와 함께 그 사진 자료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전개 하였다.

라. 동화·동요-동화 감상과 동요 감상뿐 아니라 동영상과 동시 감상으로도 활용하였으며, 같은 것을 선택해 반복 감상하고, 다른 동요를 선택하여 감상할 기회도 가졌다. 콘텐츠 재생 시 로봇은 콘텐츠에 맞는 표정과 고개, 팔, 바퀴를 움직이면서 보다 친근하고 활동적으로 동화와 동요를 들려주어 유아랑 로봇이 서로 주고받는 동화 놀이 세상이 된다.



출석체크를 해요



작품을 찍어요



동화를 주고 받아요



정리정돈을 해요

#### 4. 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의 유치원 생활에서 교육용 로봇 활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높아졌고 유아들이 소그룹으로 교육용 로봇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개별학습 및 교사 도우미 역할을 하여 교사가 유아들에게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 표현활동으로 의사소통 능력 Up! 자신감 Up!

-2010. 수업연구교사 활동 사례 나누기-



김 지 선  
밀양 밀양초등학교

첫 발령을 받고 교단에 섰을 때가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그저 아이들이 좋아서 선생님 되기를 소원했다. 온종일 아이들과 수업한다는 것이 나에게 제일 큰 행복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기에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교사의 소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수업은 나에게 매 순간마다 새로움을 느끼게 하고, 도전의식을 준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 수업이 좋다. 이런 나의 마음이 수업연구교사의 긴 장정에 도전하게 했다. 짧으나마 그 중 몇가지 효과적인 수업 TIP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 I. Fun Fun 영어 교실 만들기

교실 옆 벽면과 게시판에 학생들의 수업 활동 결과물 및 여러 가지 정보, cartoon 등을 제시, 복도 소식 알람판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 영어에 대한 안목을 넓히도록 하였다. 수업시간 동안 배운 영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음 (www.daum.net)에 영어 학습방 EGG(Fun English Go Go)을 마련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받고 가정과 학교 수업을 연계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로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 홈페이지(미니홈피)를 이용하여 OX퀴즈와 PPT로 제작한 파일과 게임을 제시하여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흥미롭게 표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II. 의사소통 능력 Up 자신감 Up

1. Individual Work - 일주일 동안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혹은 최근 뉴스 소식을 미리 준비한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현장감을 살려가며 리포터가 되어 발표하고 이를 인터넷 학습방에 올려보도록 한다. Little teacher 활동을 통하여 반 전체 학생들의 leader화, 마이크 활용 의사표현하기 등을 통한 개별 활동을 한다.

2. Pair and Group Work - 짝이나 모둠원들과 그림을 보며 이야기 이어가기, 다음 장면 상상하며 말하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단순한 연습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 속에서 표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Whole Work - Skit, 가면무도회, 역할극, 인형극 등을 통하여 모둠별 혹은 개별적으로 모든 학생들 앞에서 발표함으로써 영어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언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4. Password Loudly - 영어교실에 들어오면서 지정된 간단한 문장을 표현하며 들어오도록 하여 계속적인 발화기회를 주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5. Buy 1 Get 1 - 물건을 하나 구입하면 보너스로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의 활동으로 학생들이 오늘 배운 표현 중에 한 문장을 말하고 교사가 그에 적절히 응답함으로써 자신이 말한 한 문장과 교사에게 대답으로 들은 한 문장을 포함하여 적어도 2문장씩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Ⅲ. 작은 실천으로 살아 숨쉬는 교실

1년 동안 실천 과제들을 해나가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고 수업 시간마다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고된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의사소통능력이 신장되어 가고 자신감을 가지는 변화된 모습들을 볼 때에 고된 시간들은 기쁨의 나눔으로 변해갔다. 교사들의 작은 실천으로 교실수업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수업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즐거운 과학시간을 꿈꾸며



최 돌 선

양산 성산초등학교 교사

### 1.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요’는 학기 초 과학과에 대한 아이들과 일선 교사들의 설문 조사 결과이다.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각 학급의 2~3명 정도, 대부분의 어린이는 과학이 어렵고 따분한 교과로, 교사들은 지도하기 힘든 교과로 인식되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하지만 과학실로 들어서는 아이들의 눈빛은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는 탐구심과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즐겁고 흥미로운 시간으로 이끌 수 있을까? 내 고민이 시작되었다.

### 2. 좋은 과학 수업을 위한 PCK

초등 과학교육은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즐겁고 흥미 있는 과학수업을 고민하면서 과학과의 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 Pedagogical Contents Knowledge(PCK)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다.

#### 가. 과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학기 초 해당 학년의 과학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과학적 지식과 탐구영역을 분류하고 상호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학년별, 월별, 단원별 지도계획을 수립하였다.

#### 나. 교수·학습지도 방법 개선에 노력하였다

철저한 단원 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하고 그에 적합한 학습 방법을 정하여 제대로 된 탐구 영역을 지도하려고 힘썼다.

〈학습 주제별 탐구과정과 수업모형〉 (4학년 1학기 4.모습을 바꾸는 물)

차시	학습주제	학습자료	탐구과정	수업모형
1차시	물의 세 가지 상태 알기	학급별: 다양한 물의 사진	분류	발견학습
2차시	물이 소중한 이유 알기	칫솔, 컵, 대야, 수조, 눈금실린더	측정, 의사소통	STS수업
3차시	물과 얼음 관찰 하기	페트리접시, 돋보기, 얼음, 물	관찰	발견학습
4차시	물이 얼 때의 무게와 부피	시험관, 저울, 비커, 얼음,.....	예상, 측정, 관찰	탐구수업

**다. 학습 동기 지속 방법을 적용하였다**

학습 단계에 적합한 발문으로 지적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하도록 힘썼다. 학습의 도입단계에서는 확산적 발문으로 사고력을 촉진시키고 학습의 정리 단계에서는 수렴적 발문으로 학습한 내용을 요약 정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영화, 동영상자료, 마술, 애니메이션, 그림 등을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하였다.

**라. 창의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였다**

과학교육은 미래의 무한 경쟁 지식 기반 사회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창의성 신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단순히 주어진 단원의 진도를 맞추기보다 다양한 과학적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 과학 수업의 흥미를 더하였다.

- 1) 브레인스토밍 :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아이디어를 무질서하게 생성하는 것으로 사고의 유창성과 융통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 2) 브레인라이팅 : 빠른 시간 내에 생성된 아이디어를 종이에 써 보는 기법으로 사고의 유창성과 융통성을 신장시키는 활동이다.
- 3) 마인드맵 : 생각의 고리를 중심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방사적사고로 정보를 연결시켜 기억하게 하므로 주제를 쉽게 생각해 내고 조직화 하는 기법이다.
- 4) 육색사고모 : 한번에 한 유형의 사고만을 유도하는 사고기법으로 감정과 논리를 분리시키고 정보와 독창성을 분리시킬 수 있으며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자유탐구활동



육색사고모



육색사고모



브레인라이팅



마인드맵

**마. 학년 수준에 맞는 기초탐구와 통합탐구과정을 상호 관련지어 지도하였다**

과학과의 특성은 자연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구체적 조작을 통한 실험 등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학생 중심의 탐구실험과 관찰활동을 바탕으로 한 자료로 결과를 추리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가급적 적은 인원의 모둠으로 상호간 협력이 되게 하였다.

#### 바. 주변의 각종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 1) 최신 과학, 과학자 이야기, 과학 상식 등을 적절히 소개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였다 - 재미학습에 과학나라 공부방 개설 후 관련 자료 탑재 활용
- 2) 재활용품은 좋은 수업자료로 활용하였다. - 빈 우유통, 요구르트통, 휴지심, 음료수병, 병뚜껑, 비닐 등 수집
- 3) 부족한 시간은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하였다.-재미학습, 사이언스올, 과학 창의재단, 창의력넷 등 활용.

#### 사. 다양한 관찰 탐구환경을 조성하였다

사육 동물, 재배식물, 날씨변화, 기온측정 등 연중 관찰 탐구가 가능하도록 과학실 탐구환경을 조성하였다.



부레옥잠, 금붕어

나팔꽃

토마토, 피망

무

보리

#### 자. 과학 수업이 지닌 문제점을 찾아서 최소화하였다

과학수업은 실험과 관찰 활동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이외에도 명확하지 않은 실험 결과로 인한 혼란, 사전 실험시간 부족, 실험실에서의 안전사고 노출 등의 문제점을 찾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다.

### 3. 즐거운 과학 시간을 꿈꾸며

과학교육에 대한 열정은 과학 전담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 할 것이다. 미래의 무한 경쟁 지식 기반 사회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과학적 기초소양을 기르고 창의성 신장을 강화하는 즐거운 과학시간을 위해 위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학습자에 대한 이해, 수업 분위기조성, 과학실 환경개선, 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하여 스스로 반문하고 점검하면서 호기심으로 가득한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탐구와 창의성을 길러주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운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활용	차세대 나이스 기능 개선 및 변경 사항들	NEIS
----	------------------------	------

차세대 나이스는 기존의 교무업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통합 업그레이드하여 기존의 자료들을 이관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기존의 많은 명칭들을 모두 통합하여 영문명칭 없이 한글명칭만으로 ‘나이스’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무업무시스템은 나이스의 여러 메뉴 중의 하나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나이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기존의 나이스에서 가장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게 되는 메뉴를 중심으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 1. 주간 학습

기존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거의 활용이 되지 않던 주간학습 메뉴가 차세대 나이스에서는 선생님들이 사용하게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기존의 ‘이지에듀’나 ‘눈소리’에서 하던 학급별 주간학습내용을 등록하고 수정하여 출력합니다.

- ▶선행처리 작업 : 주간학습내용등록, 반별시간표 등록(기초시간표를 작성하여 반영함)
- ▶[주간학습생성]버튼을 클릭한 후 편제와 개설교과목을 맞게 설정한 후 저장하면 ‘학습내용등록’에서 등록한 내용들이 주간학습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생성됩니다.

- ▶[주간학습생성]버튼은 처음 한번만 실행합니다. 만약 다시 실행하면 만들어진 주간 학습이 처음의 학습등록 내용으로 초기화됩니다.
- ▶반별시간표에 해당 교과가 등록되어 있다면 날짜와 요일을 자동으로 가져와 생성 해줍니다.
- ▶학년도, 학기, 학년, 반, 편제를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주간학습 내용이 조회됩니다.
- ▶[한줄위로], [한줄아래로]버튼을 이용하여 차시별 학습내용(순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순번을 조정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순번에 의하여 반별시간표의 날짜, 요일, 교시를 가져와 자동으로 주간학습을 생성합니다.
- ▶‘반별 시간표’에서 선택된 교과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저장할 경우에는 학습내용 등록에서 [편제신규]버튼을 클릭한 후 [신규편제입력] 팝업창에서 ‘신규편제’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추가]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된 행 바로 아래 신규행이 추가되어 하단의 입력 창을 통해 신규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 주간 학습 내용 등록

주간 학습 내용 등록은 주간 학습을 사용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필수 작업입니다.

- ▶전체 학습내용 초기 자료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학년별로 필요한 자료가 'helpsys.mest.go.kr'의 자료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 ▶학습내용을 파일로 다운받아 ‘파일올리기’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파일올리기’ 기능을 이용하여 학습내용을 등록할 때에는 지정된 엑셀 파일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2011년에는 ‘2009개정교육과정(1~2학년)’, ‘2007개정교육과정(3~6학년)’이 적용되므로 [학습내용]버튼을 클릭하여 각 학년에 해당하는 학습내용을 올바르게 내려받습니다.
- ▶학습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탑재하거나 그대로 ‘파일올리기’하여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 ▶재량활동, 특별활동, 창의적 체험활동(1~2학년)의 학습내용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별도로 등록합니다.
- ▶재량활동, 특별활동, 창의적 체험활동(1~2학년)파일 작성 시 ‘파일내리기’ 기능을 사용하여 받은 파일에 내용을 편집하여 ‘파일올리기’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 ▶편제는 시간표에 등록된 교과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한줄위로], [한줄아래로]버튼을 이용하여 출력순서(차시)를 맞출 수 있습니다.
- ▶학습내용, 준비물 항목 등은 너무 길지 않게 등록합니다.

### 3.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4개 영역으로 2011년부터 1, 2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 2학년부터 새롭게 사용하게 되는 메뉴입니다.

- ▶자율 활동 : 학생별 자율 활동 사항을 누가기록하고 특기사항을 기록하여 조회 및 출력합니다.
- ▶동아리 활동 : 학생들을 동아리활동 부서별로 배정하고 출석 상황을 관리하며 특기사항을 누가기록하고 조회 및 출력합니다.
- ▶봉사 활동 : 학생별 봉사 활동 사항을 누가기록하고 특기사항을 기록하여 조회 및 출력합니다.
- ▶진로 활동 : 학생별 진로 활동 사항을 누가기록하고 특기사항을 기록하여 조회 및 출력합니다.

#### 훈령 제 187호 개정 내용

##### 제13조 제1항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창의적 재량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확대 통합됨에 따라 ‘창의적 재량활동’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특별활동상황’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으로 변경

### 4. 업무 승인 관리

업무 승인 관리는 기존의 교무업무시스템에서도 사용하던 메뉴로서 차세대 나이스에서는 업무포털과 연계하여 ‘업무승인’을 통해 문서들을 관리합니다.

- ▶법정문서(학생부, 정정대장, 졸업대장)들은 ‘업무결재’로 지정하여 반드시 학교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합니다.
- ▶기타문서(학교일지, 출석부 등)들은 ‘내부승인’으로 지정하여 결재선을 운영합니다.
- ▶결재를 상신하면 결재자의 ‘미결함’이나 ‘업무포털’ 화면에서 조회, 결재가 가능합니다.

## 안아주며 인사하는 우리 학급



박 현 성

김해 능동초등학교 교사

대한민국에는 매일 아침 안아주면서 인사하는 학급이 있다. TV속 진기명이나 기네스북에서나 볼 만한 일이 일어나는 학급이 있다. 바로 능동초등학교 6학년 5반이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를 기억해 보면 나의 관심은 온통 이성 친구에게 있었다. 물론 밖에서 구슬치기, 딱지치기하는 것도 좋았지만, 청소 시간이면 남아 여학생들과 장난치면서 노는 그때가 가장 재미있었다. 하지만 어린 초등학교이지만 내숭이라는 것을 알아, 누가 물어보면 여학생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여학생들을 단순히 골려 주려고 장난을 친다고 말하곤 하였다. 20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의 초등학교를 보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남학생 여학생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듯 남학생은 여학생과 놀면 재미없다고 내숭을 떤다. 여학생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선생님이 보면 서로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아 보이고, 지금도 서로에 대한 관심을 장난으로 대신한다.

내가 교사가 되고 보니, 내가 그랬던 것처럼 행동하는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고치고 싶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에서 양성 평등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솔직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하였고, 방법도 연구하였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매일 안아주면서 인사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 인사를 처음 시행하려 할 때 참 어려움도 많았다. 5, 6학년만 되면 손도 잡기 싫어하는 남학생, 여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교육 연극, 교육미술도 배웠고, 또 학생들의 맘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 연수에도 참가하였다. 양성 평등, 성교육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수를 들었고, 그리하여 성교육 전문 강사 자격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서로가 서로 다른 성에 대한 맘의 문을 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년 그 방법을 적용하여 양성이 평등한 학급, 안아주면서 인사하는 학급을 만들고 있다.

아침에 모든 친구들이 등교하면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한 줄로 서서 서로를



안아주면서 인사한다. 남학생이 ‘친구야 사랑해’ 라고 말하면 여학생은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하면서 안아주며 인사하기도 하고, 여학생이 ‘오늘도 좋은 하루’ 라고 하면 남학생이 ‘너도 좋은 하루’ 라고 말하고 안아주며 인사하기도 한다. 이 인사법을 시행하고부터 여러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안아주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은 학급에 누구와 누구가 서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다. 가령 안아주기 인사가 어색한 친구가 있으면 불러 살짝 물어보면 어제 둘이 다투었다든지 지금 어떤 문제로 서로 고민하고 있다는 등을 다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학급에서는 1년 동안 싸움이 줄어들었다. 또한 매일 안아주기 인사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다른 성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 양성 평등의식은 친구에 대한 배려로 전이되어, 우리 학급은 남학생들 사이, 여학생들 사이, 또 남녀 사이 너무나 친하게 지내고 있다. 너무나 특이한 학급이다 보니 여러 곳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반은 양성 평등 학급티셔츠도 지원받았고, 소방서로부터 119소년단 모자도 지원받았다. 현장학습을 갈 때도, 수련활동을 가서도, 수학여행을 가서도 남학생 여학생 그달의 마니또끼리 서로 손을 잡고 다니다 보니, 여러 사람들의 눈요기도 되는데, 침엔 반에서 안아주며 인사하는 것은 할 수 있으나, 다른 곳에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놀리는 것 같아 싫다는 학생들이 지금은 완전히 맘의 문을 열어 오히려 주위의 그런 시선을 즐기고 있다. 우리가 바뀔 때 다른 사람들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은 여러가지 학교 행사나 체험학습에서 양성 평등을 꼭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보면 우리 학급 학생들은 너무 좋아하고 스스로 뿌듯해 한다.

우리 반 학생들은 안아주기 인사를 통해 보여지는 우리의 다양한 양성 평등의 실천 방법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경남 새미학습에 양성 평등 전문학급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우리 반 학생들이 만든 다양한 양성 평등 사진, 표어, UCC, 글 등이 있다. 이 사이트 운영을 통해 스스로의 양성 평등 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양성 평등 자료를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 이런 노력으로 올해 우리 학급 안지송 학생이 양성 평등 글짓기 대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또, 민혜원 학생이 미디어 속 양성 불평등 사례 찾기 대회에서도 전국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양성 평등 관련 여러 실적도 거두었다. 그리고 119소년단으로 활동하면서 남학생 여학생이 사이좋게 활동하고, 양성 평등 119 자료도 만들어, 2010년 11월 9일 학급 전체 학생들이 양성 평등을 통해 실천한 안전 교육방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사실은 남



학생 여학생이 다정하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상식을 뛰어 넘은 좀 특이한 인사이다 보니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져, 어느 대회, 캠프를 나가도 우리 반 학생들을 보면 특이해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플러스가 되어 여러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안아주기 인사의 본질은 바로 서로에 대한 배려에 있다. 매일 학급의 모든 친구들과 안아주며 인사하면서 그 친구의 체온을 느끼고,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안아주기 인사의 가장 큰 매력이다. 겨울이면 안아주기 인사를 하면서 손이 찬 친구들이 있으면 손을 비벼주고, 또 갑자기 밖에서 들어와 몸이 얼음같은 친구들이 있으면 몸을 더 꼭 껴안아 주는 등 안아 주기 인사를 하는 그 속에서도 친구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가 있다.

지금도 서로 다른 성의 차이로 인해 차별받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 사회의 양성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양성 평등 실천 의식 함양은 절실하다, 작은 변화가 우리 사회의 양성 평등을 실천한다는 생각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안아주기 인사’가 여러 학급에 전파되기를 바란다.



# 내가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을 마치고



최 영 수

산청 단성초등학교 교사

## 1. 시작하면서

“선생님, 졸업식 언제 해요?”

해마다 2월이면 ‘졸업’이라는 학교 행사를 통해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되돌아 보고 미래를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진다. 최근 건전한 졸업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예방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특색 있는 졸업식 문화 정착이 이슈화되고 있다. 예로부터 배움에 있어 시작과 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정서에 비추어보면 졸업 그 자체가 의미있고 추억이 되는 학교 교육활동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난 2월 19일(토) 본교에서 실시한 제98회 졸업식은 다른 학교와의 차별화·특색화로 인하여 교직원은 물론 참석했던 학부모, 내빈 등 모두가 공감하는 뜻있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이색적인 졸업식 아이디어의 시작은 겨울 방학 전 교실에서 이루어진 교장선생님과 6학년과의 면담 과정에서 출발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예전과는 다른 졸업식 풍경이었다.



## 2. 이렇게 실천했어요

교장선생님과 면담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의견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졸업식을 시도해 보기로 결정하였다. 교육활동의 연장인 졸업식이 어떻게 하면 졸업생을 주인공으로 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두 번의 교사협의회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수렴하였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실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축하와 감사 주간 학급 행사 실시, 둘째, 졸업식 진행의 간소화 및 학생 참여 확대이다.

### 가. 축하와 감사 주간 학급 행사 실시

졸업생 31명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 위한 졸업 준비 행사를 학급에서 실시하였다. 우선 졸업식 1주일 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축하와 감사 주간을 정하여 학교에 게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쓴 후 직접 전달하였다. 그리고 학급 행사로 14일은 칭찬 릴레이 카드 만들기, 15일은 내가 읽은 좋은 책 소개하기, 16

일에는 학교문집 원고 발표하기, 17일은 독서 올림픽 대회, 18일은 독서 골든벨 퀴즈왕 등 학년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충분히 가능한 활동 위주로 진행하였다.

매일 색다른 주제로 학급 행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별로 발표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독서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다소 무료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 나. 졸업식 진행의 간소화 및 학생 참여 확대

국민의례,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를 시작으로 하는 일련의 졸업식 진행 순서 및 방법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였다. 학생 개인별로 모두 받게 되는 졸업장, 학교장상 및 장학금을 동시에 수상한 후 그 자리에서 자신의 6년 동안의 추억, 장래 희망에 대한 다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는 말 등을 2분 이내로 발표하였다. 종래의 대표자만 했던 송사와 답사를 없애고 31명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며, 개인의 솔직한 감정이 담긴 소중한 말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과 울음이 번지게 했다.

다음으로 졸업식 노래 대신 후배들이 마련한 합창이 이어졌다. 지난 2주 동안 졸업하는 누나, 형, 오빠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습한 두 곡(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넌 할 수 있어!)이 끝날 때 쯤 졸업식의 열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늘 독서활동을 강조하시는 교장선생님은 졸업식 당일에도 사람됨과 독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졸업생에게 책을 한 권씩(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라) 선물해 주셨다. 졸업생들은 앞으로도 책을 가까이 두고 독서를 생활화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 3. 마치면서

졸업생들이 교단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선생님들이 손을 잡으며 일일이 격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고, 졸업생들의 소박한 다짐과 후배들의 축하곡을 들으면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졸업식에 대한 의식 변화와 다양한 행사 위주의 변화는 새로운 추억거리 만들기를 넘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졸업식 행사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학교구성원 모두의 학교사랑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졸업생이 주인공이라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 특색 있는 졸업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면서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기초 학력 신장



안 병 용  
양산 상북초등학교 교장

### 1. 필요성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초와 기본학력 책임 강화로 모든 학생이 읽기·쓰기·기초수학의 기초능력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기본학습능력을 갖추게 하는 기초 기본 교육에 충실 하기를 요구 하고 있다. 또한 학습부진 학생의 학력신장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의욕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와 지도의 효율성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방과 후 특별보충지도와 방학 중 학력캠프 등을 운영하여 학습 부진 요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학생의 능력에 맞는 단계의 학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 2. 세부 추진 내용

#### 가. 온종일 학교 운영

- 1) 기초, 교과 보충 활동으로 4~6학년 기초, 교과 부진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 2) 온종일학교 지도는 본교 희망 교사를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 3) 지도방법 : 학습 부진 정도를 파악한 개인별 자료를 참고로 담당자가 책임 지도하였다.
  - 가) 선정된 부진학생의 부진요인을 파악하여 개인별 지도 기록부를 작성하여 집중 관리
  - 나) 부진아로 관별된 각 아동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도 내용과 지도자료, 지도 결과를 누가 기록
  - 다)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학습 결과물을 학생용 파일에 누가철
  - 라) 가정학습의 개별과제 제시 및 가정과의 연계
- 4) 여름방학 중 학력 캠프 운영
  - 가) 4,5학년 수학,영어 보충반
  - 나) 문자 이해특학생을 위한 특별 보충지도

5) 겨울방학 중 학력 캠프 운영

-4학년과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4학년과 5학년 각각 반별 1주일씩 1학기과 2학기 내용 복습을 중심으로 집중지도를 하여 내년 3월 교과학습진단평가를 대비하게 하였다.

**나. 배움의 전당 기초학력 다지기 프로그램**

1) 교사와 학부모를 지도강사로 선정하여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선별하여 학년, 과목을 구분하여 아동들에게 맞춤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6학년 국어, 수학 학력 향상반

교사가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6학년 과정의 기초 내용을 복습시키고, 학부모도우미를 활용하여 전(前)학년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병행하여 지도함으로써 학습결손의 뿌리부터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부진이 zero인 학교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3) 5학년 수학 학력 향상반

반별 선정된 아동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개별 맞춤 지도를 하였다. 연산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인 반복 학습으로 연산력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5학년 과정의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학력부진에서 아동들을 구제하고자 노력하였다.

4) 4학년 영어 학력 향상반

3학년부터 시작된 영어학습에서 결손이 시작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학생과의 학습력 차이가 더 커지기 전에 학습결손의 골을 메우고자 3학년 수준의 기본적인 표현익히기에 주력하였다.

5) 외부강사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학년 교사가 직접 아동들을 관리하고 지도함으로써 아동의 학습수준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아동의 개별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하여 지도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하였다.

6) 학부모도우미들의 무료 자원봉사를 통하여 아동지도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었으며 부족한 예산 안에서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01



02



03

01 4학년 영어학력향상반

02 5학년 수학학력향상반

03 6학년 학력향상반

순	프로그램	지도시간	강사	장소
1	6학년국어학력향상	주4회(월, 화, 목, 금)	교사, 학부모	6-1 교실
2	6학년수학학력향상	"	교사, 학부모	6-3 교실
3	5학년수학학력향상	"	교사	5-3 교실
4	4학년영어학력향상	"	교사	4-3 교실

#### 다. 대학생 멘토링 제도

여름방학에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여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었다. 저소득층 학생 중 교과지도가 필요한 학생 2명을 선정하여 교과지도와 상담 활동 체험활동 등 개별화 학습을 통해 자신감이 형성되고 학습의지가 높아졌다.

### 3. 지도 결과

- 1) 방과 후 교과 보충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6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한명도 없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4,5학년도 기초 학습 부진학생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력향상 우수학교에 최종 선정되었다.
- 2) 교과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꾸준한 지도와 개인별 부진 영역을 파악하여 지도함으로써 기초 기본 학력이 향상되었다.
- 3) 방과 후와 방학 중에도 보충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였다.
- 4)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



#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에 하나뿐인 졸업식



김도영

창원 동진여자중학교 교장



01



02



03

## 1. 들어가며

알몸 졸업식이나 물에 빠뜨리는 등 잘못된 졸업식 문화 개선을 위하여 본교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 개선 선도학교로 지정받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졸업식을 기획한 결과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졸업생이 주인공이 되어 색동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학급 졸업식과 전체 졸업식 등 두 번의 졸업식을 가지며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감동을 느끼는 축제 형태의 졸업식을 치르면서 졸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 2. 졸업식 준비, 그리고 졸업.

### 가. 졸업 프로젝트 운영

기획·추진·실행 등 3개 분과로 이뤄진 프로젝트팀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졸업식 주제를 공모하고 교사와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발송 등 졸업식 준비를 총괄하여 졸업 주간 행사 운영, 졸업 주제 설정, 졸업식 복장 선정, 학급 졸업식 기획 및 추진 등의 활동을 하였다. 졸업식의 주제는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선정하고 전체 졸업식과 학급 졸업식의 주제는 각반에서 정하였다. 졸업식 복장은 수차례 논의 끝에 여학교답게 우리 고유의 멋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색동 당의를 학교에서 준비하고 어머니나 할머니의 치마를 입는 한복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방송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전체 졸업식의 ‘추억스케치’ ‘송별 메시지’ 전근가신 선생님들의 ‘축하메시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ucc를 방학 내내 제작하였다.

### 나. 학급 졸업식

7개 학급 졸업생 235명은 전체 졸업식 전날인 2월 10일 오후, 각 교실에서 교복이 아닌 색동 한복을 입고 학급별 졸업가를 부르며 졸업을 축하했다. 학급별 졸업식은 각종 상장을 나눠주는 것을 제외하고 7개 학급의 프로그램이 모두 달랐다.

01 졸업프로젝트팀

02, 03 학급졸업식

학급별로 일제히 시작된 졸업식은 부모님과 선생님께 편지 쓰기, 토스트 만들기, 뷔페식 파티, 화해의 시간, 허그(Hug) 타임, 행운권 추첨, 다과회, 교지(校誌) 낭독과 감상 등 일곱빛깔 무지개처럼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졌다. 일부 학급은 운동장에서 꼬리잡기, 피구게임 등을 하며 졸업식을 치렀다.

학급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나의 자랑, 나는 당신의 자랑〉, 〈END, AND...〉,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도약〉,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시간을 돌아보며〉, 〈Go 高 高〉, 〈Hi, High school〉 등의 학급별 졸업식 주제를 선정하고 학급 졸업가도 반별 주제에 맞게 각각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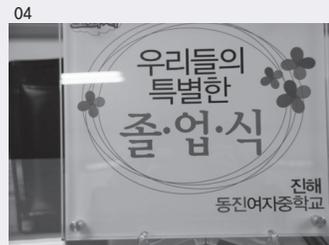
#### 다. 졸업주간 작품 전시

지난 11월 3학년 2차고사 이후 각 교과에서 졸업식 주제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하여 각 교과별로 결과물을 만들고, 학급별로도 졸업 주제에 맞는 활동을 하여 그 작품을 학급 별로 전시하여 2월 7일부터 1주간 학급 복도에 전시한 후, 졸업식장으로 옮겨 다시 전시하여 참관한 학부모들이 크게 감동하였다.

#### 라. 전체 졸업식

해군 교육사령부 군악대의 광과르에 맞추어 졸업생들이 색동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후배들의 박수 속에 레드카펫을 밟으며 식장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군악대의 축하 공연에 이어 3년 간 학교생활을 되돌아보는 영상 〈추억 스케치〉가 이어지고, 졸업생 235명 모두가 무대에 올라가서 학교장, 교감 및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졸업장을 받고 포옹하며 덕담을 들었다. 기존의 송사 대신 1학년 재학생들의 축하곡 ‘넬라 판타지아’ 합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답사 대신 학급마다 반가를 부르며 송별 메시지를 전하였다. 또한 내빈들의 축하 대신 1, 2학년 때 담임선생님과, 졸업선배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청 고영진 교육감님의 축하메시지를 영상으로 전달하였다. 전근 가신 전 년도 담임선생님들과 화면으로 만나면서 반가움과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송별 메시지 영상을 보면서 아쉬워하였다. 또 반가를 부를 때는 형광봉을 흔들며 추억을 나누고, 기존의 졸업가를 대신하여 인기 대중가요인 O15B의 ‘이젠 안녕’을 학교 생활 영상과 함께 편집하고 자막으로 가사를 처리하여 졸업생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이가 함께 불러 한바탕 신나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식후 행사로는 어머니의 마음과 스승의 은혜를 부르며 보은과 감사의 마음을 다졌다.



04 취재기념패  
05 학급졸업식 취재  
06 학급별 전시회

### 3. 졸업식을 마치고

색동 한복을 입고 두 번 졸업식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한 자 한 자 정성을 담았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이에 부모님과 선생님의 마음도 잔해지고, 친구들 간의 석별의 정을 나누며 그 어느 졸업식에서도 보기 어려운 감동이 흘렀다.

3학년 담임 박종석 교사는 ‘당신께 쓰는 편지’를 개사한 ‘반 졸업가’를 들었을 때 “담임교사로서 뿌듯함, 흐뭇함과 함께 참으로 제자들이 고마웠다”고 하면서 27년 간 교직 생활 중 가장 감동적인 졸업식을 기획한 학교에 감사하였다. 또한 졸업생 3학년 5반 하수지 양은 “초등학교 때와는 전혀 다른 졸업식을 하게 돼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3학년 2반 서채영 학생은 “한복을 입고 야광봉을 흔들며 하는 졸업식은 정말 신선했고, 군악대와 재학생들의 축하 공연과 일주일 동안의 졸업 주간 행사는 졸업식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하였다. 무대에서 졸업장을 받을 때 우는 친구들도 많았고, 정말 감동적인 졸업식이었다.”고 하였으며, 서채영 학생의 어머니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곳곳에서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행복했던 졸업식이 아이들 가슴마다 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라고 학교 측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본교 제23회 졸업식은 학생들을 행사의 주체로 만들면서 그릇된 졸업식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07



08



09

- 07 군악대 축하연주
- 08 졸업장 수여
- 09 졸업 작품 전시회



##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



이 성 근

통영 인평초등학교 교사

### 1. 운영의 배경

한려수도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통영은 예로부터 해양자원과 문화유산이 풍부했다. 이런 우수한 자연·사회·문화적 바탕위에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통영의 유·무형 자산을 바탕으로 통영시는 자연, 문화, 역사의 다양성과 발전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2005년 10월, UNU<sup>1)</sup>로부터 세계 여덟 번째로 지속가능발전교육<sup>2)</sup>을 위한 지역지식전문가센터(RCE<sup>3)</sup>)로 인준 받았으며 올해 12월에는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을 창립한 상태이다.

본교는 통영 RCE의 주요 사업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일반화 방안을 연구하는 과제를 2007-2008년 2년간 수행하였으며, 2009년 9월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운영에 대한 지역적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로부터 유네스코 협동학교<sup>4)</sup>로 지정받았으며, 올해는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ASPnet<sup>5)</sup>)에서 공모한 2010. 청소년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전국 유네스코 협동학교에 본교의 우수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교내·외 다양한 여건을 바탕으로 본교에서는 형식 교육으로 창의적 재량활동의 한 분야로 운영하고, 비형식·무형식 교육<sup>6)</sup>에서는 에코스쿨(Eco School) 만들기 운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 1) 국제연합대학(United Nations University) : 평화와 개발·복지 등 인류의 공통적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국제연합총회가 설립한 세계적인 조직망을 가진 연구기관으로 일본 동경에 본부를 두고 있음.
- 2)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구하는 환경과 사회,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 발전 패러다임을 이루기 위한 형식, 비형식, 무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총칭함.
- 3) RCE(Regional Centre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지역 지식전문가 센터로써 UN대학이 지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 지역 거점 센터
- 4) 유네스코 협동학교 : 교육을 통해 국제 협력과 평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행하는 학교간 네트워크로써 경남 2개교, 국내에는 108개의 유네스코 협동학교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 5) ASPnet : 유네스코 네트워크 범위 밖 일반 학교의 학습 역량 증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험기구로서 우수교육사례 및 자료 개발, 채택, 실험적 활용을 수행하는 학교간 네트워크
- 6) 비형식(informal) 교육은 연구소, 국립공원, 과학관, 박물관, 식물원 등이 포함되며, 무형식(non-formal)교육은 기업, 언론, 지자체, NGO 등의 교육방식을 말한다.

## 2. 운영 내용

### 가.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육활동 내용 및 목표

통영의 지역적 특성이 안고 있는 산업과 문화, 생태적 환경을 장기적 관점에서 탐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

#### 1) 형식교육에서의 ESD 창의적 재량활동 목표 및 내용

##### 형식교육 ESD 목표

통영의 지역적 특성이 안고 있는 산업과 문화, 생태적 환경을 장기적 관점에서 탐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

##### 2010. ESD재량활동 운영

- 프로젝트 학습, 현장체험학습
- 월 1회 토요일 전일제 운영
- 학년별 17시간 이상 운영

##### 학년별 재량활동 주제



#### 2) 비형식·무형식 교육에서의 ESD 교육활동 목표 및 내용

##### 비형식교육 ESD 목표

나눔과 비움의 빈그릇 운동, 재활용,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등의 습관화·내면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 사회 구현의 바탕을 마련한다.

##### 에코스쿨(Eco School) 만들기

##### 비움과 나눔의 빈그릇 운동 (Clean up plate)

- 빈그릇 실천관 활용
- 월별 반별 잔반량 계측
- 빈그릇 운동 캠페인

##### 재활용의 생활화 (Recycle)

- 분리수거함 설치
- 재활용 생활용품 만들기
- 폐휴지 수집하기

#####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Save Energy)

- 전기, 물 사용량 추이 게시
- 1회용품 사용 안하기
- 절약 생활화 하기

- 01 생물다양성조사(1학년)
- 02 천함산 생태여행(2학년)
- 03 통영연 만들기(3학년)

## 나. ESD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성상 지역의 문화를 실제 현장에서 체득하고, 에너지 절약, 재활용 등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토요 전일제로 운영하였다.

## 3. 운영 성과

### 가. 2010학년도 ESD교육활동 평가

- 1) ESD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창의성이 길러졌으며 친구들과 협동하여 계획, 체험,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하였다.
- 2) ESD 체험활동을 통해 통영의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보전·계승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3) 빈그릇 운동, 재활용 생활화하기, 에너지 절약 등의 습관이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으로 연계되었다.

### 나. ESD가 개인에게 갖는 의미

학생을 대상으로 ESD의 의미를 물어보았다.

〈손나은〉나라의 발전이다. - ESD를 통해 나라 발전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세현〉통영을 내다보는 창문이다. - ESD를 통해 통영의 수산물, 깻벌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아〉열매이다. - 다 익고 나면 맛있고,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

〈김태완〉미래를 이어주는 선이다. -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김수림〉세계의 규칙이다. - 모든 나라가 노력을 해서 환경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김예지〉지구의 치료제이다. - 환경을 보호하면 아픈 지구를 다시 돌릴 수 있다.

〈서유진〉실천이다. - 지구촌 문제에 먼저 앞장서서 실천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혜진〉친구이다. - 삶에 친구가 필요하듯이 ESD도 꼭 필요한 친구이다.

04



05



06



04 통영오광대 배우기(4학년)

05 수산과학관 견학(5학년)

06 굴 체험학습(5, 6학년)

# 공부를 잘하려면 자신의 성격에 맞는 공부방법을 찾아라



변 경 오

한국학습클리닉창원센터 소장

## How to learn

얼마전 엘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의 양대 산맥인 존 나이스비트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래의 교육 목적은 "How to learn" 즉,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교육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답하여 학습 방법을 모르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의 패러다임은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기주도학습이 논의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학력신장과 진학목표달성을 위해 교육현장에서는 학습컨설팅, 학습매지니먼트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금방 달라지고 변화할 것 같은 기대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공부 좀 하라고 겨우 방으로 밀어넣으면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냉장고를 열어젖히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 시험 때만 되면 혼자서는 싫고 굳이 친구네 가서 공부하고 오겠다고 조르는 아이, 시험 성적으로 혼이라도 내려 하면 다음에는 무조건 전교 1등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우기는 아이 등, 공부에 대처하는 우리 아이들의 자세는 너무나 다양하다. 하지만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이런 태도는 자칫 습관이 되기 쉽고, 결국 공부와는 거리를 두게 만든다. 아이들 개개인의 성격과 성향에 맞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으로 지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우리 아이, 성격부터 파악하자

나고민(17·가명·중학1년)양은 요즘 성적 고민이 많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많지만 성적은 늘 제자리. 산만한 심리상태에다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 시험 때도 무턱대고 암기만 하려하니 좋은 성적이 나오기 어렵다. 또 고교 진학을 앞둔 양산만(16·가명·중학3년)군도 공부는 열심히 하나 규칙적이지 못하고 마무리가 약한 게 흠. 또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짹짹 아이들 공부 때문에 걱정이다. 하지만 막상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며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자녀의 성격에 따라 학습요인별 장단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습전략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일종의 '학습 클리닉'인 셈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격 특성을 활용한 학습 유형을 알아본다

## 6가지 학습유형과 공부방법

**실습중시형(R)** 실제 눈에 보이는 일의 성취와 인정이 중요시되는 유형.

친구들과 언어적 교류보다는 작업이나 운동하기를 좋아하며 말이 없고 무뚝뚝해 보인다. 손이나 신체활동을 좋아하며 맑은 일을 묵묵히 해 내는 편이다. 영어 수학보다는 체육을 좋아하다. 침착하게 앉아서 하는 공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므로 많이 시키지 말되, 확실하고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해 단기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돕는다. 하교 후 간단한 운동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 뒤 정해진 시간 동안 복습 위주로

짧게 공부하도록 유도한다. 시험 때는 정리된 요약본이나 패턴화된 문제풀이법을 주고, 구체적인 과제를 주면 더 잘한다.

#### **학습흥미형(I)** 지적호기심이 중요시되는 유형

한 가지 주제를 두고 깊이 있게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며 실험을 통해 원리를 발견하는 탐구학습을 좋아한다.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학원에 가기 싫어하며 수학과 과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관심분야를 혼자 깊이 파고드는 경우가 많고 책과 자료를 찾아보며 문제를 해결한다. 소위 영재들이 이 유형에 많이 속한다. 반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자칫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질 수도 있다. 목표를 정해 혼자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학습 방법이 독특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학습방법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자극으로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좋다.

#### **감성중시형(A)** 영혼의 감동을 중요시하는 유형.

예민하고 창의성과 기발함을 요하는 학습에 적극적이다. 선생님의 주입식·설명식 수업을 지루해하고, 스스로 발표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술적 성향이 짙어 여러 방면에서 뛰어나. 예능과목 수업을 좋아하고 감각적이고 미적인 학습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수업에 흥미를 보인다.

마인드 맵(Mind Map) 표현학습을 통해 감성을 분출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 감정 기록이 심해 변덕이 심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도록 신경을 써줘야 한다. 책상보다 소파 등에서 편안한 자세로 공부하길 좋아하므로 꾸짖지 말고 공부를 했는지만 확인하고 자유롭게 두며,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이 뚜렷하므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효과적이다.

#### **관계협동형(S)** 사람들로 부터 받는 인정이 중요시되는 유형.

부드럽고 편안하고 친절하고 사교적이다. 공부보다는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따르는 등언어와 대인관계, 직관력에 장점이 있지만 수리, 계산능력이 떨어진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면 이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 경쟁적 관계보다는 우호적 관계를 선호하고 칭찬과 격려, 스킨십을 좋아한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을 잘 따르고 친구랑 같이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부모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되 시간관리, 학습량 체크 등을 잘해 줘야 제대로 된 학습방법을 형성할 수 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므로 본인이 공부해서 다른 학생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 **자신만만형(E)** 자신감이 중시되는 진취적인 유형.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타인을 설득해 통솔·지시하는 활동에 강하다. 자신의 주장을 친구들 앞에서 잘 표현하고 언어구사력이 뛰어나며 토론과 발표 수업을 좋아한다. 목적지향적이다 보니 과정을 무시하거나 실패할 때 남의 탓을 하기도 한다. 자신감을 죽이지 않는 선에서 학습에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주면 열정적으로 공부에 몰두하기도 한다. 인정받기를 원하므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학습 활동도 효과적이다. 과정의 중요성,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차근차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 **성실노력형(C)** 안정을 추구하고 책임감을 중요시하는 유형.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과제, 준비물을 잘 준비하는 모범생 스타일이다. 성실하지만 변화를 싫어하고, 응용에 약하고 논술에 취약하다. 잘 짜인 수업에 따라 공부하며 선생님 중심의 주입식·필기식 수업을 선호한다. 꼼꼼하게 노트필기 잘 하며 정돈되고 깔끔한 분위기를 좋아한다. 시험불안이 있으므로 잘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학습지도를 한다면 효과적이고 수준별 선행학습도 바람직하다.

교육은 만남이다. 아이들은 진정한 만남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해 간다. 아이들의 변화에는 무엇보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진심이 필요하다. 진정한 만남 속에서 아이 자신이 스스로의 장점과 재능을 발견하여 꿈과 목표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그 다음에 공부의 Rule(규칙)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체계적이고 자신의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독서치료를 통해 잊고 있던 나를 만나다...

김 순 숙

진해중앙초등학교 특수교사

창원도서관 독서아카데미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09년 부터이다. 특수교사로 15년 정도 경력이 사이면서 치료라는 이름으로 받아 본 연수나 강의는 미술치료, 상담치료, 언어치료, 예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했다. 독서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논술에 도움이 될까하여 참여하게 되었다는 중·고등학교 국어교사와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지만 실제 하는 일은 막노동이라고 하는 사서교사와 초등학생들의 독서 토론에 도움을 받을까 해서 온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새로운 것이라면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나, 이렇게 모두는 창원도서관에서 만났다. 첫 만남에서 리더를 맡으신 사서선생님은 독서치료 입문기에 필요한 독서치료의 정의 및 운영 일정, 상황별 읽어야 할 책 등을 안내하셨다. 상황에 맞는 책을 읽으면 무의식에 묻혀있던 자기 상처를 만나고 남 앞에서 경험을 통해 치유까지 된다고 했다. 일단 남 앞에서 내 상처를 드러내려면 아주 큰 용기가 있거나 아주 친밀한 관계이거나 아주 얼굴이 두꺼워야 하지 않을까?

첫 도전 상황으로 인간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김형경의 「천개의 공감」을 읽게 되었다. 그 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가족이 나의 상처와 지금의 내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나의 실체가 사랑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실체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 맺기가 그 동안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도 어렵קות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첫 도서를 읽고 벌써 치유가 되기 시작했는지 울면서 자기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그런 분위기를 거북해하고 감정 과잉 분비라고 치부했다. 사실 이런 감정적이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싫어하는 것은 내 어린 시절의 공감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거부되었던 누적된 경험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행사하는 폭력으로 말미암아 학대받는 아이들의 이야기와(이호철의 「학대받는 아이들」),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였던 하임 G. 기너트의 「교사와 학생 사이」등을 읽으면서 교사로서의 나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본 적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학창 시절 학대받고 무시당했던 경험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맞아!! 맞아!!를 연발했던 시간은 다시 그 상처와 아픔을 제자들에게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은 면해보자는 합의를 남기도 했다. 독서아카데미에서 만난 최고의 책들은 역시 다음 3권을 들 수 있다. 내 상처의 뿌리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W. 휴 미실다인의 원만한 정서생활을 가로막는 「몸에 밴 어린 시절」과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던 배르벨 바르데

츠키의 「따귀 맞은 영혼」과 삶이 원래 고해라고 시작하던 독서치료의 성경과 같았던 책 스캇 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2010에 2번 3번 읽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문장에 밑줄을 긋게 해 지금 내 책장의 이 책들은 온갖 형관펜으로 자국으로 더러워진지 오래다.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미처 몰랐다.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양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마음 상해하고 혼자서 구두를 고르지 못하고 내신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누가 대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내재과거아와 자신에게 부모 구실을 하는 몸에 밴 어린 시절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우주의 한 부분인 인간은 이렇게 몸에 밴 어린 시절을 이해하고 따귀 맞은 영혼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게 왜 이런 행동, 이런 감정,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처 받지 않은 사람은 없고, 내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데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 없으며, 설사 내 상처나 아픔을 드러낸다고 하여 친밀했던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도 자존감이 다 높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책을 정독하고, 그 책을 읽은 느낌을 글로 쓰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활동을 한다. 그래서 책을 정독하고 다 읽지 않으면 쓰기와 말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또한 작가가 하는 말을 책이 주는 감동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리고 머리로 이해한 책이 가슴으로 내려와야만 글로 내 감정이나 느낌을 쓸 수 있었다. 나는 1년 반이 지나서야 내 상처를 남 앞에서 포장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 치유력은 놀라웠다. 먼저, 나만 상처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타인들은 나의 상처에 별로 관심이 없으며, 소문날까 두렵고, 그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던 마음을 내려놓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또한 아이들이나 나이가 어린 어른일수록 자기 상처를 내보이는 것을 덜 힘들어 하였다. 아마도 누적된 실패 경험이나 내면화된 타인의 확신이 적기 때문에 더 빨리 치유되는 것을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기도 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자아존중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도 좀더 어렸을 때 알았다면, 누가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 번이라도 주었더라면 하고 남에게 내 마음의 열쇠를 넘겨주었다면 오늘부터는 달라지리라 선택해본다. 아이들에게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겠다고……. 상처 받았던 것만 보였던 것에서 상처 주었던 것들을 보듬기 시작했다고 하면 내가 너무 앞서 간 것은 아닌가 싶다. 나는 오늘도 책을 읽는다. 어느 서점의 문구처럼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인간이 창조한 종합예술인 책을 통해 인생과 철학과 종교와 사람의 마음과 관계 생각하고 아주 깊이 느낀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타인의 정신적 영적 성장을 위해 나를 확대시키려는 의지와 행동과 선택을 위해서…….



# 신 발

지 영 현

진주 망경초등학교 6학년

신발장에 나란히 놓여있는 신발 네 켤레  
색깔도, 크기도 각양각색  
나이도, 경험도 각양각색

커다란 아바의 낡은 구두  
우리를 위해 이쪽저쪽 걷고, 땀다.  
운 누리에 환한 빛이 되는 아바의 구두

엄마의 굽이 높은 뽕족구두  
사랑을 실천하러 오늘도 떠난다.  
또각또각  
세상을 사랑으로 울리는 엄마의 구두

흙이 툴툴 묻어있는 오빠의 축구화  
몸이 뜨거워 달아오를 때까지 땀다.  
축구화로 오빠의 희망을 찾는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늑한 내운동화  
학교와 학원과 운동장과 만난다.  
운 누리의 꿈을 담은 나의 운동화

8개의 신발은 우리들의 꿈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꿈을 찾고, 사랑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  
오늘도, 땀다.



〈개천문학 백일장 차상 작품〉



## 『180억 공무원』을 읽고



김 위 영

밀양교육지원청 지방교육행정주사

2009년 11월경 우연히 공무원이 읽어야 할 추천도서 중에 책 제목이 ‘180억 공무원’이라고 하기에 대부분 공무원은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여 성과를 나타내는 데 저자는 ‘어떻게 무슨 행정으로 180억이라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책장을 열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몇 년 전에 접했던 ‘주식회사 장성군’이 공무원집단의 변화라고 한다면, ‘180억 공무원’은 말단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3천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180억 수익을 올린 고창 청보리밭 축제 이야기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바탕 화면의 푸른 초원이 고창의 청보리밭이라고 하니 정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 책을 읽은 후 복분자만 봐도 고창군이 떠오를 만큼 고창군의 매력에 푹 빠져 있던 나는, 2010년 10월경 남편과 함께 고창을 방문하였으며, 마음 같아선 저자 김가성님도 한 번 뵙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전은 하지 못하였다.

저자 김가성은 가족들의 축구사랑으로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축구경기를 관람하면서 ‘운동장이 양탄자 같아 한 번 뒹굴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고향 인근 농원에는 초록빛 들판과 이 축구경기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보리밭이 있지 않은가! 누구라도 한번 보기만 하면 반하지 않을리 없다. 그래, 보리밭을 상품화 한 번 해보자’라는 그 생각이 고창의 청보리밭이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기획하는 계기가 되었다.

## 향기나는 서가 ●●●

청보리밭 축제를 기획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는 것은 가시밭길이었다. 대부분의 상사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표하는였지만, 군수님의 ‘한 번 해보게’ 라는 말씀에 뿔 듯이 기뻐다. 저자는 제일 먼저 보리밭 주인의 승낙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을 하였고, 축제를 위해 7급 고참이었지만 6급 승진마저 뒤로한 채 면사무소 좌천 인사를 자원하였다.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경비를 부담하면서 전국의 크고 작은 축제장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축제의 성패는 홍보라고 판단하고 3천만원 예산으로는 홍보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직접 복분자주 100병을 담가 토·일요일은 전국을 다니며 성공적으로 축제를 기획한 사람들을 만났고, 여행작가협회를 통해 작가들을 만나고, 방송국을 찾아가 방송작가와 PD들을 만나면서 홍보선물로 직접 담군 복분자를 주었다. 그 후 복분자술은 ‘선연’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되었다.

2년에 걸쳐 준비한 축제 당일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500개의 우산을 준비하여 새벽 4시에 축제장을 찾았다. 우려와는 달리 마음 속으로 기도한 덕분인지 기적같이 하늘이 개기 시작했다.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다. ‘아이디어 하나만 믿고 2년간 믿고 따라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마음고생 많았던 스스로를 위로하며 두 줄기의 눈물을 흘렸던 저자의 모습에 나 역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

흔히 ‘공무원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 전에 제약이 많이 따른다’ 라고 한다.

결재, 예산, 집단 등 다양한 갈등이 있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와 일을 다시 들여다보면, 열정을 품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소박한 아이템이라도 차별화가 필요하며, 가장 나다운 것을 상품화 할 수 있다는 창의성과 열정을 갖고 업무에 매진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희열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일할 수 있을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지원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 즐거운 지원행정이 되리라 생각한다.



# 아름다운 우리노래 전통가곡(歌曲) - 편수대엽(篇數大葉)-



이 정 희  
창원 마산상남초등학교 교장

전통 성악의 종류에는 가곡, 가사, 시조, 민요, 전래동요, 판소리, 잡가, 종교음악, 등이 있으며 가곡·가사·시조를 묶어 ‘정가(正歌)’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통성악 중 가곡(歌曲)은 천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18세기에 이르러 많은 인기를 얻었고 지배계층은 물론이고 풍류를 즐기던 많은 사람들이 가곡을 만들고 가단(歌壇)을 만들어 연주하고 즐겼다.

조선시대 삼대 가집인 ‘청구영언’ ‘해동가요’ ‘가곡원류’는 가곡의 노래말을 담은 가사 집이며 가곡은 시조시(時調時)를 5장 형식으로 16박 또는 10박형 장단위에 평조나 계면조의 음계를 따라 관현(가야금, 대금, 거문고, 장고 등)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곡을 말하며, 일명 만년장환지곡(萬年長歡之曲)이라고도 한다.

가곡은 세련 정제된 형식미와 유려한 선율선을 지니고 있는 격조 높은 성악곡으로 우리의 노래 중에서는 그 조직과 규모가 방대하여 예술성이 뛰어난 전문가의 음악으로 꼽고 있으며 다른 전통 성악곡과 달리 가곡은 문학·성악·관현반주 등이 섬세하게 잘 맞물려 완성된 우리 전통 성악곡 중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시련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노래 가곡은 서양식 가곡에 비해 재미없는 옛것으로 취급받으며 점점 그 존재감을 잃어 가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육성되고 있다.

이러한 가곡을 지키고 보호 육성하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가곡전수관’이 개인종목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6년 개관되어 중요무형문화재 30호 가곡 예능보유자인 영송당(조순자)관장이 가곡 본연의 의미를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가곡 전용연주장 ‘영송헌’이 개관되어 명실상부한 가곡의 메카로 인정받고 있다.

가곡은 2010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인류무형유산 목록에 정식으로 등재되고 그 문화적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 그리고 오랜 시간 전승되고 있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다음에 이조 숙종 때 김수장이 꽃을 의인화하여 지은 사설시조를 10박 장단으로 노래한 ‘편수대엽’을 소개하면

계면조 편수대엽(界面調 篇數大葉) '모란은'

初章 : 모란(牡丹)은 화중왕(花中王)이요

二章 : 향일화(向日花)2)는 충신(忠臣)이로다

三章 : 연화(蓮花)는 군자(君子)요 행화(杏花)3) 소인(小人)이라

국화(菊花)는 은일사(隱逸士)요 매화(梅花) 한사(寒士)로다

박꽃은 노인(老人)이요 석죽화(石竹花)4)는 소년(少年)이라

규화(葵花)5) 무당(巫堂)이요 해당화(海棠花)는 창녀(娼女)이로다

四章 : 이중에

五章 : 이화(梨花) 시객(詩客)이요 홍도(紅桃) 벽도(碧桃)6) 삼색도(三色桃)7)는

풍류랑(風流郎)8)인가 하노라 - 김수장(金壽長)1) -

- 1) 김수장(金壽長 : 1690~?) 자는 자평(子平), 호는 노가재(老歌齋), 병조서리(兵曹書吏). 당시 김천택(金天澤)과 쌍벽의 가인(歌人). 서울 화개동에 노가재를 경영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여러 가인들과 활동함. 1763년에 해동가요(海東歌謠)를 찬집한 공로 자임. 시조 135수가 전함
- 2) 해바라기 3) 살구꽃 4) 패랭이꽃 5) 접시꽃 6) 흰 복숭아꽃 7) 한 나무에 세 가지 색으로 핀 복숭아꽃 8) 풍류가 있고 멋들어진 젊은 남자

위의 곡은 필자가 96년 독창회 때 학생 30여 명을 지도하여 함께 불렀던 곡이며 그 후에도 필자와 학생, 교원, 학부모들을 지도하여 함께 여러 차례 무대에 올린 곡으로 2010년 본교 '학예한마당'에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발표한 곡이기도 하다. 의(義)와 충절(忠節)의 고장으로 알려진 경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문화재인 '가곡' 창을 초·중등학교의 교육현장에 전승·교육하여 조상의 멋과 생활모습을 알고 인내심을 기르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곡창 소리가 가득하길 바란다.



필자(이정희)와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 발표하는 모습  
성산아트홀 제10회 교원자생연구회 연합페스티벌(여창가곡연구회장 이정희)

작품명 : 음울



크기 : 40\*32cm 제작방법 : 애쿼탄트



---

---

---

---

## 조 동 영

- 현)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교사
-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화 및 동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졸업
- 제1회 개인전(괴테연구소초대 - 독일 프랑크푸르트) (2001)
- 한동인전 21세기 한국화전망전, 용두국제환경미술제 등 단체전 50여회 출품(1991~ 현재)

#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슬로건 및 캐릭터

## 슬로건 부문

- **최우수 입선작** : 경남은 지금 독서 중!  
(슬로건 의미 : 전 경남도민의 독서 생활화를 표현)
- **우수 입선작**
  - 책 속에 꿈 책 너머 희망
  - 북(book)적 북(book)적! 경상남도
  - 함께하는 책 읽기 함께여는 희망경남
  - 펼쳐요! 책속행복 누리요! 행복경남
  - 책 읽는 기쁨 나누는 행복
  - 책을 내걸에 미래를 내품에

## 캐릭터 부문

- **최우수 입선작**



- 캐릭터 명 : 초록이 또는 書朗(서랑)
- 캐릭터 설명 : 책을 읽음으로써 느끼는 기쁨을 말함.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유난히 밝고 따뜻한 기운을 내뿜는 것을 나타냄.

- **우수 입선작**



(반디부기)



(반디)